

한 국 평 협

제35호 · 1998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 국 평 협

제35호 · 1998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평협 제35호

발행일 1998년 1월 25일

발행인 류덕희

편집인 한국평협 홍보분과위원회

서울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 회관 5층

☎ (02)777-2013 Fax (02)778-7427

한국 평협

제35호
1998·1

인사말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류덕희 · 4

「제삼천년기」 44-48항

1998년은 성령의 해 교 황 · 8

1998년 성령의 해 각 교구장 사목교서

- 서울 / 참된 복음화를 향하여 김수환 · 11
춘천 / 복음을 믿고 사는 이웃 공동체 장 익 · 18
대전 / 성령과 선교의 해 경갑룡 · 20
인천 / 복음화하는 교구 공동체 나길모 · 28
수원 / 성령의 해 - 성령은 우리의 힘ियो 희망 최덕기 · 33
원주 / 사랑의 문화 건설의 해 김지석 · 40
대구 /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이문희 · 45
부산 / 성령에 힘입어 교회의 모습을 쇄신하자 이갑수 · 47
청주 / 교구 공동체의 복음화 정진석 · 54
마산 / 사회정의 실천의 해 박정일 · 58
안동 / 오소서, 일치와 희망의 원천이신 성령님! 박석희 · 62
광주 / 그리스도 안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윤공희 · 65
전주 / 성령의 해를 맞이하여 이병호 · 73
제주 / 성령 안에서 희망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김창렬 · 83
군중 / 일치와 복음화의 역군이 되는 해 정명조 · 96

2000년 대희년과 평신도

대희년과 평신도의 역할 이창훈 · 101

제30회 평신도주일 강론 자료

이제 제자리를 찾아 나섭시다 평 협 · 111

주교단 공동 사목교서와 평신도의 자세

자신부터 돌아보고 회개해야 평 협 · 116

성명서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 사는 정치’를 위한 우리의 호소 평 협 · 118

가톨릭 대상 시상

..... 평 협 · 120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다짐 평 협 · 124

각 교구 평협 회장 · 한국(전국) 평협 임원 명단 125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지난해 파국으로 치닫던 경제 위기로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낳을 뻔한 어려운 고비를 간신히 넘기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실로 황당함과 암담함으로 얼룩졌던 지난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위기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결국 우리 모두의 잘못된 삶에서 비롯되었음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자성과 단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새해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평신도주일에 우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2년 앞으로 다가온 2천년 대희년을 뜻있게 맞이하기 위해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의 자기 자신을 겸허히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여 자신의 본분을 찾음은 물론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이 운동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자리 찾기의 일환으로 실시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우리들의 다짐'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도 해당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고, 과소비를 억제하고, 물자를 아껴 쓰고, 저축에 힘쓰고, 외제 물품을 쓰지 않고,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우리 농산물을 먹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일 등은 바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평협은 '내 탓이오' 운동과 도덕성 회복 운동, 환경 운동, 우리 상품 쓰기,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등을 전국민적 차원으로 이끌어 사회를 정화하고 안정시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 펼쳐가고자 하는 제자리 찾기 운동은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사회에 매우 적절한 운동이 되리라고 봅니다. 나 혼자만의 실천에 머물지 말고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에게 널리 파급시켜 전 사회적인 운동으로 정착시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

새해가 되시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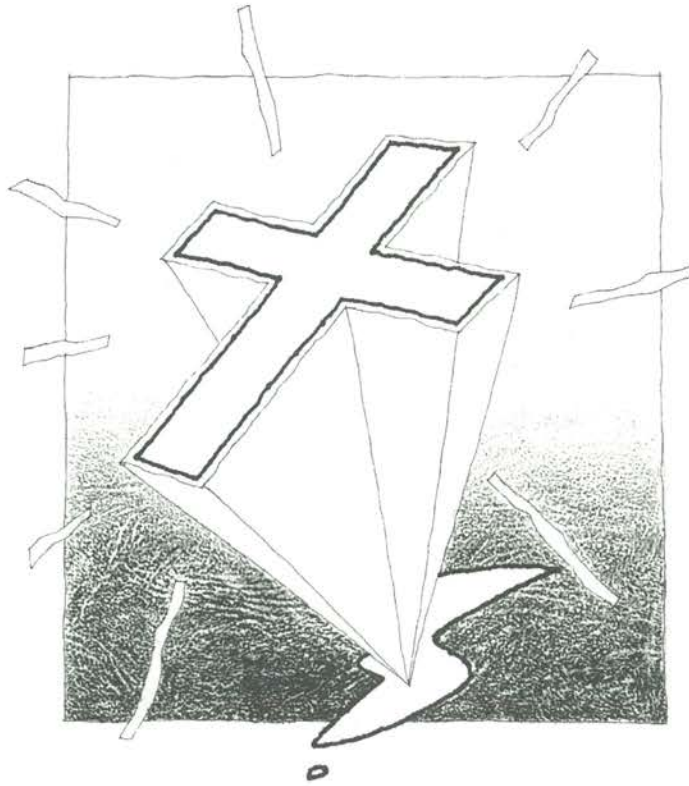
류 덕 희 모세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신자들이 앞장서 실천하여 이웃의 표양이 된다면 그 전파 속도는 급속도로 빨라지고 효과도 더욱 커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2천년 대희년을 맞이하는 것과 맞물려 이번 사회 위기 속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진정으로 세속 안에서 교회로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이원론적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본래의 자리를 되찾아 세상의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세속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합시다.

곧 제자리 찾기 운동의 중심활동과 실천사항 등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교우들의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 방법이 발표되면 모두 한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올해가 2천년 대희년을 뜻있게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내가 해야 할 일에 더욱 충실히 임하고 진정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각 교구장 사목교서

“교회는 새로운 천년기에 ‘성령 안에서만’
이 희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교황 성하의 말씀이다.

한국교회는 ‘성령의 해’인 올해 동안
2000년 대희년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전국 15개 교구 교구장의 사목교서를 통해 알아본다

1998년은 성령의 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94년 11월 10일 교서 「제삼천년기」를 발표하시면서 2000년을 대희년으로 선포하셨다. 이 교서에서 교황님은 2000년 대희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를 나누어 상세히 가르치고 계시다. 다음은 1998년 '성령의 해'를 설명한 44-48항의 내용이다.〉

둘째 해: 성령

44. 준비 단계의 둘째 해인 1998년은 특별히 성령께 봉헌되고,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성화 현존에 바쳐질 것입니다. 회칙 「생명을 주시는 주님」에서 본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둘째 천년기를 마감하는 대희년은 … 성령론적 특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강생의 신비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업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본질을 같이하시고, 하나이시며 삼위이신 하느님의 절대적 신비 안에서 위격-사랑이시며, 창조되지 않은 선물이시요, 창조계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물의 영원한 원천이며, 은총계 안에서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건네주실 때 그 행위의 직접적 원리이시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주체이신 분, 그런 성령의 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스스로를 건네주시는 그 자기 증여, 그 선사 행위의 극치가 강생 신비입니다(생명을 주시는 주님, 50항).

교회는 새로운 천년기에 “성령 안에서만 이 회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충만함’에 이르러 성령을 통해 성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되었던 일이 교회의 기억 안에서 지금 되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역시 그분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생명을 주시는 주님, 51항).

성령께서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전해주시신 유일한 계시를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교회 안에 현존하게 하시며, 그 계시를 각 개인의 영혼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주실 것이다”(요한 14,26).

45. 따라서 회년 준비의 일차적 과업은 성령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포함합니다. 성령께서는 성사들 특히 견진성사에서 그리고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붙여넣어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역할과 직무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오로지 한 분이신 성령께서는 당신의 풍요하심과 직무상 필요에 따라 교회에 유익하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어주십니다(1고린 12,1-11 참조). 이런 은혜 가운데서 사도들이 받은 은총이 가장 뛰어난 것이니, 성령께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1고린 14장 참조). 같은 성령께서 친히 당신 능력과 지체들의 내적 결합으로 한 몸을 이루시고 신자들 가운데에 사랑을 일으키시며 재촉하십니다”(교회헌장 7항).

오늘날에도 또한 성령께서는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시간의 종말에 다가올 완전한 구원의 씨앗을 이 세상에서 복돋아 주시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준비하시는 분이므로 성령께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46. 이러한 종말론적 전망 안에서, 신앙인들은 희망의 신학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골로 1,5 참조) 선포된 그 희망을 이미 들었습니다. 희망의 근본 자세는, 한편으로는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궁극 목표를 잃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계획에 맞도록 현실을 변화시키는 일상의 투신에 확고하고도 심원한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시다”(로마 8,22-24).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들의 마음 안에서, 그들이 속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사회 환경 안에서, 바로 세계 역사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결정적 도래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함으로써 제3천년기를 시작하는 대희년을 준비하도록 부름받

고 있습니다.

또한 흔히 우리 눈에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이 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현존하는 희망의 표징들을 더 잘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그러한 희망의 표징들은 인간 생명에 봉사하는 과학기술의 진보 특히 의학적인 진보, 환경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관한 더욱 깊은 각성, 평화와 정의가 침해되는 곳에서 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 다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특히 세계의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에서 추구하는 화해와 연대를 위한 열망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들 희망의 징표들은 은사들을 받아들이고 평신도를 승격시킴으로써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더욱 큰 관심, 그리스도교 일치에 대한 대의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투신, 다른 종교들과 현대 문화와 나누는 대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7. 준비의 둘째 해에 신자들의 사유는 교회 내 일치에 가치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베풀어주신 다양한 선물들과 은사들은 이 일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교회현장'에 담겨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교회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문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는 성령의 활동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사도적 직무로써 보장되고 상호 사랑으로 지탱된다(1고린 13,1-8 참조)는 것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신앙에 대한 이처럼 풍요로운 교리교육은 반드시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들에게 그들 자신의 책임에 대한 더욱 성숙한 의식은 물론 교회적 순종의 중요성에 대한 더욱 예리한 감성을 가져다줄 것입니다(교회현장 37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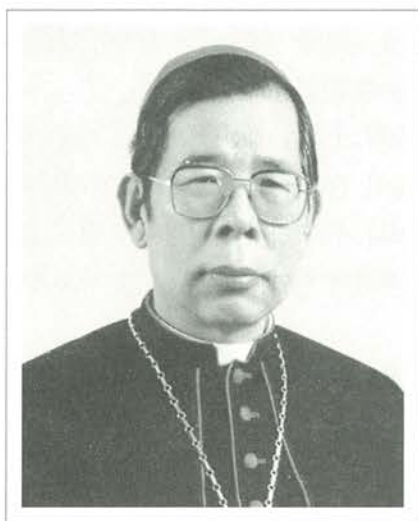
48. 마리아, 성령의 힘으로 육화되신 말씀을 잉태하셨고 그후에는 당신의 전생애가 성령의 내적 활동을 통해 인도되도록 허용하셨던 마리아를 우리는 이 해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소리에 따라 순종한 여인, 고요하고 사려깊은 여인, 아브라함처럼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며'(로마 4.18 참조)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희망의 여인으로서 명상하고 그 모범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주님의 가난한 이들의 열망을 완벽하게 표현하셨으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의 약속에 자신을 의탁하는 이들의 빛나는 본보기이십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참된 복음화를 향하여

우리 자신과 함께
사랑의 변화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김 수 환 추기경



머리말

1992년부터 2천년대 복음화를 꾸준히 추진해 온 서울대학교구는 이제 그 복음화의 흐름을 보편교회와 일치하여 대회년 경축으로 모아가고자 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탓으로 어지러워진 이 세상에 본래의 창조질서와 조화를 회복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태초의 하느님 사랑과 자비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이스라엘에 회년을 정해주셨습니다.

회년이 되면 모든 빛은 탕감되고 잃었던 땅을 되찾으며 종들은 해방되고 죄인은 풀려나서 아무도 더 이상 눈물 흘리거나 피로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시작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현 교황께서는 강생하신 지 2천년이 되는 때를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해방과 자유의 구원사명을 이루는 '은총의 해', '대회년'으로 맞이하고자 촉구하십니다. 이미 교회는 1997년을 '성자의 해'로, 1998년을 '성령의 해'로 선언하였습니다.

2000년 전 구세주께서 오셨을 때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충만하셨고 성령의 힘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루가 4,18)라

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이 구원사업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후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이 당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참으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셨고 변화를 가져왔으며, 새 하늘 새 땅 새 시대의 장을 여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숨어있던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나와서 모여든 군중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느님이 세상 구원을 위해 보내신 생명의 주, 구세주이심을 힘차게 증언하였습니다(사도 2장 참조). 또한 온갖 박해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앓은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가진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사도 2장과 4장 참조).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참으로 사도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들을 시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교회를 공고히 세우셨습니다. 성령에 힘입은 사도들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고린토를 비롯한 근동 각지와 로마에까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은 참으로 온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를 다시 나게 하고 하느님의 아들딸 되게 하며, 하느님을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로마 8.16).

그들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으시어(로마 5.5)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는 인종이나 민족, 피부색의 차별도 없고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으로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요한 16.3) 모든 이를 평화의 줄로 하나로 묶는 일치의 성령이십니다(에페 4.3 참조).

교회가 1998년을 “성령의 해”로 선언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알아뵈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성령이 계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깊이 깨닫고 그 성령께서 21세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밝고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더욱 활발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바치고 내맡겨드리자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성령은 당신의 쇄신과 구원의 힘으로 초대교회 때와 같이 우리 안에서 힘차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워져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성령에 의해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 가정, 우리 본당이 역시 성령에 의해 새로워져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사도직 활동이 성령에 힘입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닮은 새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함께 이런 사랑의 변화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1. 가정을 향하여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교회내의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짐하고 청소년 사목의 새로운 시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복음화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틀이요, 교회의 기초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고 약물중독, 교내폭력, 부모구타, 가출, 자살, 정신질환 등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는 청소년들의 부모와 가정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으며 청소년과 부모가 모두 다 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은 사회 전체에서 볼 때 아직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겠으나 갈수록 그 수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980년대 초반의 우리 나라 이혼율은 결혼한 10쌍에 1쌍이 이혼을 하는 정도였으나 90년대 후반에는 6쌍에 1쌍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가정의 와해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해 왔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가정에서의 물질적인 풍요와 여가시간의 증가라는 외형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가족구성의 양상과 체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우리의 가정생활은 짧은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서구 물질문명의 영향으로 우선 평균 가구인원수가 1960년대에 5.6명이던 것이 1990년대에 3.8명 이하로 되었고, 노인 가구수가 60년대에 10%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90년대에 들어와서 14%를 넘어섰습니다. 핵가족화 현상은 인간소외와 공동체 의식의 상실, 가족내 이기주의의 만연을 불러왔습니다. 급증하는 소비유흥문화의 영향은 문화전반을 왜곡하고 비인간화하여 성윤리를 파괴하고 결혼제도를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풍조까지 만들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 사회 활동을 향상시켰으며 교육수준의 향상과 여성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가정내 역할구분의 변화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점차로 증가하여 60년대의 25.9%에서 90년대에는 41.5%로 증가했으나 부부의 역할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가정의 불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녀출산을 살펴보면, 1961년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된 후 출산아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었고 2명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 1960년에는 36.6%였으나 1990년에는 70%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인공 임신 중절이 급증하여 1990년 총인구조사에서 드러난 남녀 성비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어떤 지방에서는 남녀 성비가 130:100을 상회하고 있고 1993년의 인공 임신 중절아의 수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경우만 해도 40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생명경시 풍조를 낳고 사회 각 분

야에 중대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래로부터 자녀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내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교육열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우리 민족 전체의 교육수준을 높였으나 동시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왔습니다. 과열 입시 경쟁은 청소년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며 가족구성원과의 유대나 대화를 단절시키고 인간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데 적지 않은 장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시의 부담으로 청소년들이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성장궤도를 이탈하여 자포자기하며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가정은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노부모가 소외당하고 부부 사이에 대화가 결핍되고 사랑이 메말라, 서로가 갈수록 소원해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접근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손을 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10월초 브라질에서 있었던 '제2차 세계가정대회'에서 교황께서는 "가정은 인류의 거룩한 유산"이며, "인간이 자신의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첫번째의 기본적 환경"이며, 그 이외의 어떤 것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싸움은 가정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 분야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으며, 혼인에 대한 충실과 생명가치의 존중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고 교황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해를 맞이하여 온갖 탐욕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오늘의 가정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여 하느님께서 태초에 가정에 내리신 축복을 회복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가정을 살리는 일이 바로 '복음화'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 북한 동포를 향하여

우리 가정의 성화와 함께 이 시점에 우리가 더 시급히 관심을 두어야 할 사람들은 북한 동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구원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이들이며 희년의 기쁨이 전달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분단된 지 50여 년이나 지나는 동안 북한은 불과 몇 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음에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먼 나라로 되었고, 미지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를 겨냥하는 이념의 대결은 냉전시대를 종식시키지 못한 채, 유일한 지구촌 분단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녘의 수많은 백성이 자유를 잃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어도 우리는 거의 의식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한 정보에 의하면, 북녘의 산하와 동포들 모두가 햇볕음과 굶

주림의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녘 동포들은 인간의 자유와 품위를 철저히 훼손당하고, 공포와 위선과 교조적인 최면에 시달리면서 통일의 그날을 위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체제유지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극소수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 터무니없는 희생을 치르며, 바깥 세상을 모르는 우물 안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비극은 한시라도 빨리 종료되어야 합니다. 공산세력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을 때 전세계 교회가 러시아의 회개를 위하여 성모님께 도움을 청했듯이, 오늘 한국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펼치게 될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북녘 형제들과 함께 어떠한 형태로든 양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북녘땅을 탈출해 낫설고 이질적인 남한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에게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나눔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50여 년 분단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지더라도 남과 북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복음적 가난에 사는 교회

이런 사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자신, 곧 교회가 성령에 힘입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 시대를 구해가는 메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린 그리스도는 먼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이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이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먼저 가난한 이들 속에 현존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억눌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들 가운데 겨우 특수사목을 지원하는 사제나 수도자 몇 사람들이 하고 있는 봉사로 교회의 체면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본당, 교회단체들은 성직자나 수도회들까지도, 가난한 이들의 벗이요 형제인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안이 속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가난한 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버림받고 잊혀지고 있는 이들이 외국인 노동자, 중국에서

온 조선족 동포들, 그들 중에서도 이른바 ‘불법체류자’ 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구는 이들을 위해서 몇 사람의 봉사자들을 통해서 약간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더 큰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무엇보다도 그들에 관한 법개정이 요구됩니다. 그들 외국인 노동자들도 참으로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존엄성에 합당한 대접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신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나라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 그들의 본국인 우리 이웃나라들과의 선린관계, 협조 및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맺음말

이제 서울대교구는 1998년 ‘성령의 해’를 맞이하여 세 가지 방향으로 사목의 결실을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에 참된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위기에 처한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사회의 기틀이요 교회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이 복음화되면 그 영향력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둘째는 북한 동포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구원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이들이며 회년의 기쁨이 전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셋째로 이들 목적이 달성되기 위하여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적 청빈을 살 줄 아는 교회, 가난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메시아적 교회가 되는 참된 길입니다.

서울대교구장 김 수 환 추기경

세부지침

I. 회년에 관하여

1. 각 본당은 대회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구역·반모임에서 「성서의 회년」(교재 1,2권)을 사용한다.
2. 대회년 정신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하여 전신자들이 복음 나누기 ‘아모스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3. 직장 공동체에서도 대회년 준비를 위해 「성서의 회년」 교재와 복음 나누기 ‘아모스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4. 남성 소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남성구역장들이 남성구역장 교육 1,2단계를 이수하도록 하며 남성구역장들의 월례교육도 준비한다. 이를 위해 지구 교육담당 신부님들의 협조를 구한다.
5.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중국에서 온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II. 가정에 관하여

1. 교구나 본당 차원에서 결혼생활,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대한 강좌 또는 토론회, Film Forum 등을 자주 개최하도록 한다. 소공동체에서 복음 나누기를 하거나 행사를 준비할 때에도 '가정'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여 '행복한 가정 운동', 'M·E', '선택' 등의 기존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2. 교구나 본당 차원에서 교우들이 가정생활이나 자녀문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상설 상담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가능한 한 모든 본당을 비롯하여 직장이나 대학, 청년단체에서는 혼인 전의 교리교육을 강화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부부간의 대화의 방법, 부부간의 인간관계의 지혜, 노부모와의 올바른 관계, 자녀양육의 올바른 방법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혼인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4.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교육과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가정에서는 가족이 함께 모이고 기도하는 날을 정하거나 습관화하여 가족구성원의 화목과 일치를 도모하도록 한다.
6. 가정에 관한 교회의 문헌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모임의 기회를 자주 갖는다.
(사목현장(Gaudium et Spes),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가정 교서-1994년 가정의 해,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여성의 존엄(Mulieris Dignitatem))
7. 주일학교나 교회행사 안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캠프나 프로그램을 만든다.
8. 생명과 가정이 갖는 가치의 중요성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범사회적으로 알리고 현대사회의 향락문화, 퇴폐문화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벌인다.

III. 북한 동포와 통일에 관하여

1. 교회의 전례행사, 기도모임, 반모임에서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계속 바치도록 한다.
2. 통일과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한 교육을 통일사목위원회와 민족화해위원회에서 마련한다.
3. 탈북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지며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본다.
4. 북한 동포의 양식을 지원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통일기금 마련을 계속한다.

복음을 믿고 사는 이웃 공동체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 17,21

복음을 믿고 사는 이웃 공동체가
되는 기초를 다지는 데
노력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심화, 사랑의 일치,
희망의 실천, 이 세 가지입니다.

장 익 주교



I. 대회년을 향하여

1.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2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때가 차차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신(갈라 4.4-5) “주님의 은총의 해”(이사 61,2: 루가 4,19)가 개벽한 지 머지않아 이천년이 되는 것입니다.

곧 다가올 이 대회년은 우리들 신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구세주 예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인종, 모든 시대와 지역을 넘어, 온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 강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천년이 지나도록, 우리 나라는 이백년이 지나도록,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 이렇듯 새로운 천년기를 여는 길목에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뿐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참 삶의 길과 기쁨을 찾아 얻을 수 있도록 힘쓸 사명을 받잡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부터 회개하여 앞으로 해야 할 바를 새로운 눈으로 바로 보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바를 살아나감으로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몸소 알리는 참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려면 우선 첫 제자들처럼 오늘의 우리 또한 죄와 죽음을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신 분의 부활을 참으로 체험하고, 그 보내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1고린 15,21-22.45 참조) 새로운 창조

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나아가서 바로 이 믿음의 빛으로 지금 우리가 그 안에 놓인 세상과 또한 우리들 자신의 상황을 비추어 이를 올바르게 보고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교회인 우리가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이웃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신앙공동체로서, 어떻게 살고 또 무엇부터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제대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분명 인류사상 꿈도 못 꾸어본 가능성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식과 과학기술, 정보소통과 국제협력뿐 아니라 문맹퇴치와 수명연장, 생활향상과 인권수호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실로 놀라운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역설적으로도, 동시에 맹목적인 배금주의와 도덕붕괴, 광신과 배타와 참혹한 분쟁, 극도의 이기주의가 빚어내는 세계 규모의 부익부 빈익빈, 무자비한 경쟁과 지식의 무기화, 무책임한 환경파괴와 경악할 생명경시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개개인도 그렇듯이, 실로 빛과 어둠의 세상, 비참과 희망의 세상, 한마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갈망하는 세상입니다. 저 사마리아 여인도 구세주를 만나기까지 “생수가 솟는 샘을 버리고 갈라져 새기만 하여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파고”(예레 2.13 참조) 있었던 것입니다.

5.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이런 세상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인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뿐더러 그 안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만, 온 세상을, 더 가까이는 우리 나라 사회를 좌우하는 빛과 어둠의 견잡을 수 없을 듯한 이런 엄청난 힘들 앞에서 교회인들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더구나 신자 개인으로서 어찌라는 것일까 하는 무력감에 빠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회의 선이나 악의 뿌리는, 세태나 제도보다도 근본적으로 인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음을. 악행을 일삼는 사람은 고사하고, “세상을 개선하는 일은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나서 그것을 구실로 자기의 작은 세계에 안주하는 인간들도 모두 개인의 죄를 범하고 있다.”(화해와 참회, 16항 참조)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강조하십니다.

성서는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총이 넘쳐흘렀다.”(로마 5.20)고 단호히 주님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참된 각성과 회개, 믿음의 분발과 사랑의 실천만이 하느님의 자녀된 도리요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1고린 4.1) 하기 때문입니다.

6. 이렇듯 “모든 피조물은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영의 첫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신도 아들의 신분을,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로마 8.22-23).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비는 마음으로 미사 전이나 후에 늘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한 기도문을 바칩시다.

II. 우리가 함께 갈 길

1. 길을 나서기에 앞서 지도를 펴보아야 합니다.

복음화의 새 세대를 여는 계기로 대희년을 맞고자 하는 교회의 뜻을 우선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제삼천년기」가 기본이고,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주교회의의 2000년 대희년 주교특별위원회가 펴내고 있는 ‘대희년 길잡이’ (제1권:희년의 성서적 근거와 우리의 현실; 제2권:희년의 그리스도 신앙적 의미; 제3권:희년의 실천적 구현과 우리의 미래) 세 권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들은 본당 내외의 모든 모임에서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면 희년 맞이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구세주 탄생 대희년의 실천을 향해 무엇부터 해야겠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믿고 사는 이웃 공동체가 되는 기초를 다지도록 함께 힘써야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보아 믿음의 심화, 사랑의 일치, 희망의 실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즉 평소의 전례·성사·기도·봉사 등 통상적 신앙생활의 바탕을 더욱 다지자는 것입니다.

2.1. 복음을 믿으려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 말씀을 몸에 익혀, 하느님이 뉘시며 그 자녀인 우리는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자라면 누구나 성서모임, 성서쓰기, 청소년 성서공부 등 여러 길 중 하나를 택하거나, 혼자서라도 일상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살아 나가면 큰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2.2. 믿는 바를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통한 신앙의 유산인 성서·전례·교부·공의회 의 가르침 등을 더없이 잘 종합하여 제시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내용을 우리 교구의 성직자, 수도자, 교우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진지하게 공부하고 이해해 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겠습니다. 원본을 신앙입문서로 요약 정리한 「가톨릭 예비자 교리서」를 예비신자들 뿐 아니라 이미 영세한 교우들도 1997년부터 꾸준히 보아나가고, 견진 교리로는 그 「4단계 신비교육기」를 취하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3. 복음적 이웃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어려움은, 앞서 보았듯이(4항), 크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 함께 마땅히 우려해야 할 그런 풍조와 세대로 인해 오히려 시민 양심이 크게 눈을 떠 참된 인간성을 되찾아 나서는 값진 노력도 도처에 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 또한 밖으로 더 열려있으면서 안으로도 한걸음 한걸음 내실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3.1. 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신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터전을 튼튼히 닦아야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신심·활동 단체의 열정과 헌신이 본당을 주도할 만큼 그 공헌이 컸습니다. 그러나, 증

가 일로에 있는 냉담률을 보더라도, 이제부터는 신자 누구나가 다 자연스레 함께할 수 있는 인간규모의 소공동체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려면 신자 모두를 포함하는 본당의 기본 틀인 구역과 공소 특히 반이 친밀한 사귄과 나눔과 섬김의 이웃 공동체로 살아 숨쉬어(사도 2.43-47) 본당이 그야말로 산 세포인 공동체들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3.2. 진정한 복음적 빛과 사랑으로 뭉쳐있는 공동체의 품안에서라면 오늘날 시련을 겪고 있는 신자 가정도, 특히 마음의 고향을 찾아해매는 청소년도, 외롭게 잊혀져 가는 노인도, 남모를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실제로 체험하고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3. 밖으로는, 주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믿는 공동체로서,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있는 교회, 이웃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특히 어렵고 가난한 이에게 이웃이 되어주는(루가 10.36) 교회, 주님 따라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온'(마르 10.45; 요한 13.14) 교회, 그때그때의 현실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교회로 변신해야겠습니다.

이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말과 삶으로써 증언하며(사도 4.32-33)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백성에게 호감을 사면, 단지 말로 하는 전교로 그치지 않고 사도 시대처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실 것입니다(사도 2.47).

춘천교구에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엄주언 마르티노 회장님과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 같은 훌륭한 모범을 고맙게도 앞세워 주셨으니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분발하여 본받으십시오.

3.4. 새로운 창조질서를 안팎으로 지향하는 대화년의 뜻에는,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의 관계 혁신과 일치뿐 아니라, 갈수록 큰 의미를 띠는 자연과의 참된 관계와 책임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역사를 완성으로 이끄시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가 되게"(에페 1.10)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드는 신앙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교구의 특성으로 보아 농촌사목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폭넓은 생명운동과 환경보호에 교회의 남다른 적극적 투신이 요청됩니다.

4. 우리 교구는 반세기에 이르는 민족분단의 아픔을 직접 몸에 안고 있습니다. 춘천교구의 절반이 휴전선 너머에 놓여있고 그쪽 인구도 이쪽에 못지않은 실정임에도, 우리는 그 반쪽은 막연히 언짢게, 멀리 느끼며 매일의 관심사에서는 내어놓다시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쪽 교우들의 소식마저 모르는 형편에, 통일에 어떻게 대비하고 거래의 화해와 일치에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일은 단지 정치·군사·경제·제도의 차원에서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교회인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나라가 참으로 치유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은 그러나 인력으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나라의 주보이신 성모님과 우리 순교선열들의 전구에 의탁하며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임하십시오.

5.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 지체들입니다”(1고린 12.27).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며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면서 평화의 끈으로 영의 일치를 힘써 지키시오”(에페 4.1-3).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 모두가 우리라는 이웃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어 구원의 기쁨에 이르르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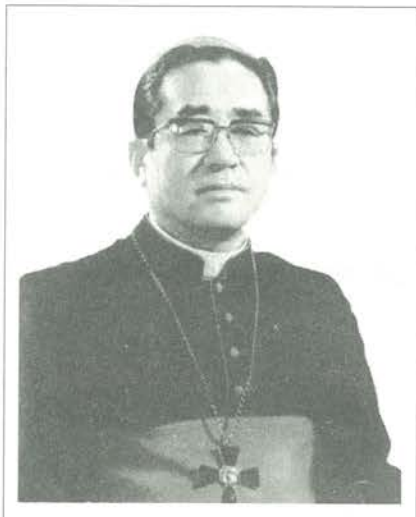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내림하시는 구세주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춘천교구장 장 익 주교

성령과 선교의 해

이제 우리 교구는
 묵은 나를 벗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과거의 방향에서 탈출하여
 새롭게 탄생,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 눈을 돌려야겠습니다.

경 갑 룡 주교



1998년도 교구 사목지표는 '성령과 선교'로 정합니다.

교황님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회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의 2차 연도인 올해를 특별히 교회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을 새롭게 인식하고 성령께 이 한 해를 봉헌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제삼천년기, 44항). 올해는 또한 대전교구가 설정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 성령은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에 활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교황님은 「제삼천년기」 교서에서 2천년 대회년은 성령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시고, 강생의 신비가 전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생명을 주시는 주님, 50항).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천년기를 합당하게 맞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과 더불어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실 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요한 14,26)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할 때 교황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혼입니다. 성령은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의 삶을 활기차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

구인가 하는, 이른바 정체성을 자각케 하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끈끌하게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성령을 우리는 그 동안 너무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제이고 수도자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는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며 살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지 못한 채 타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 무속적인 신앙에 쉽게 기울어지는 것도 성령의 빛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대회년 준비의 일차적인 과업은 성령의 현존과 그분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고 하신(제삼천년기, 45항)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천 사항

1.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성령의 현존을 자각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일을 시작하고 수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이를 위해 모든 기도와 일을 시작할 때마다 「가톨릭 기도서」에 나오는 “오소서 성령님…” (Veni Sancte Spiritus) 기도를 바치도록 한다.

2. 성령의 성사인 견진성사를 적극 권장하여 영세 후 아무 이유 없이 견진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성령의 해를 맞아 모든 교우들이 견진성사를 합당한 준비와 함께 받도록 사목자들은 온갖 배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이미 견진을 받은 사람도 이 성령의 해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본당 견진 때 혹은 기회를 마련하여 견진 갱신식을 갖도록 한다(견진 갱신식 양식을 작성하여 추후 보낼 것임).

3. 지난해부터 시작한 성서 읽기 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성서를 읽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읽고 묵상하도록 사목자들은 적극 지도한다. 성령이 없으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복음은 찬란한 생명력을 내뿜는다고 한 어느 교부의 말을 늘 기억하도록 한다.

2. 교구 설정 40주년은 교구의 새로운 성령강림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우리 교구는 ‘성령의 해’에 교구 설정 40주년을 맞습니다. 가히 섭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40을 불혹(不惑)의 나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미혹함이나 흔들림 없이 안정되고 성숙한 나이란 뜻입니다.

40은 또한 성서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화'의 뜻이 있습니다. 이는 노아 홍수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이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서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창세 6.12). 그래서 이를 정화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40일간 대홍수를 일으키시고 새 우주를 만드셨습니다(창세 7-9장).

둘째로 '탈출', '변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에집트를 탈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온갖 시련과 좌절 그리고 방황의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과거로부터의 '탈출'이었고 변화를 통한 '거듭남'이었습니다.

셋째로 40은 소명을 받기 위한 준비기간이었습니다. 인류의 대천장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는 40일간 시나이산에서 준비하였고(출애 24.12)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야훼 하느님의 소명을 받기 위해 단식하며 40일간을 보냈습니다(1열왕 19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30년간의 침묵의 사생활을 마감하시고 때가 되어 공적인 전도사업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마르 1.12).

넷째로 40은 '과건'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발현하시어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셨습니다(마태 28.18; 마르 16.15; 요한 20.25; 루가 24.39). 마침내 승천하실 때가 되자 주님은 제자들을 장엄하게 과건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신의 협조자 성령을 보내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요한 14.16).

우리 교구 40년 역사를 뒤돌아볼 때 위에 말한 성서상 40이 뜻하는 모든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구는 묵은 나를 벗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과거의 방황에서 탈출하여 새롭게 탄생, 새 출발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믿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눈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성령은 생명과 진리의 영이시고 자각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참으로 믿고 그분께 매달리면 우리 교구는 새로운 성령강림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천 사항

1. '탈출'과 '정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와 오늘의 교회가 "어디 있는지"(창세 3.9)를 자문해야 한다.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말씀의 묵상과 성체 신심 운동을 적극 떠나가야 하겠다. 모든 공동체는 매주 금요일을 성체조배일로 정하고 아침미사 후부터 밤 12시까지 성체를 현시한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중단없이 한 시간 동안 성체 앞에서 말씀의 봉독과 묵상을 하도록 유도한다.

2. 우리 것을 경시하고 남의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근자에 와서 해외 성지순례가 매우 빈번한 반면 교구 내 성지순례는 매우 뜸한 편이다. 순례는 관광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매우 속화된 느낌이다. 이 해에 교구 내 각 본당은 우리 신앙 선조들의 일이 스며있는 교구 내 성지(유적지)를 순례다운 순례를 함으로써 신앙 선조들을 본받고 올바른 순례 문화를 정착하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한다. 교구 홍보국은 각 성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준비하여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사목국은 올바른 성지 순례 방법과 순서를 작성하여 인솔 사제가 참고하도록 한다.

3. 새해 중반기부터 각 지구별로 성체 거동을 알차게 준비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10월에는 교구 40주년 기념 성체대회를 성대하게 거행한다. 지구별 성체 거동을 돕기 위해 교구는 성체 거동 순서와 내용을 준비하여 사전에 보내도록 한다.

4. 새해부터 교구 쇄신위원회(가칭)를 2천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교구의 사목과 행정 전반을 쇄신 차원에서 전면 검토하고 2천년대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우도록 한다.

3. 본당은 선교의 전초기지이고 성소의 못자리입니다

한 본당이 성령의 충만 속에 활기가 넘치는 본당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그 본당이 선교하는 본당인가 하는 것과 성소자가 많은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가 선교를 사목지표로 정하고 추진해 온 지 어언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반적인 선교 열풍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선교가 전보다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당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님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구 신자 비율이 전국 비율에 달하고 냉담자가 가장 적은 교구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선교운동을 떠나가야 하겠습니다.

실천 사항

1. 선교는 교리 지식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토론을 통해 하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다. 영세한 모든 신자는 누구나 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고 또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선교 방법을 모든 교우들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모두가 선교 대열에 동참하도록 독려한다.

1) 먼저 선교 대상자를 한두 사람 뽑아 마음에 입력하고 연초에 장엄한 예식을 통해 주님께 봉헌하도록 한다.

2) 입력한 선교 대상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우들 가운데에는 선교를 망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3) 선교 대상자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작은 호의와 친절을 지속적으로 베풀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상자를 위해 작은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

4) 무엇보다 착한 표양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별히 하느님을 모시는 사람답게 늘 밝고 기쁜 모습을 보여주고 메시지를 정직과 성실로 대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상 네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하느님을 믿으라고, 교회에 나가자고 권하지 않더라도 대상자 스스로 하느님과 교회에 관심을 갖고 인도해 줄 것을 청할 것이다.

2. 각 본당마다 매년 연말 적당한 날을 택해 본당 선교왕을 뽑아 표창하고 교구에 자세한 보고를 한다. 교구는 연말에 교구 선교왕, 그리고 선교와 성소 우수 본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교구 홍보수단을 통해 널리 이를 알리도록 한다. 냉담자 회두 역시 선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이 역시 선교 차원에서 표창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왕에 해오던 '선교를 위한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선교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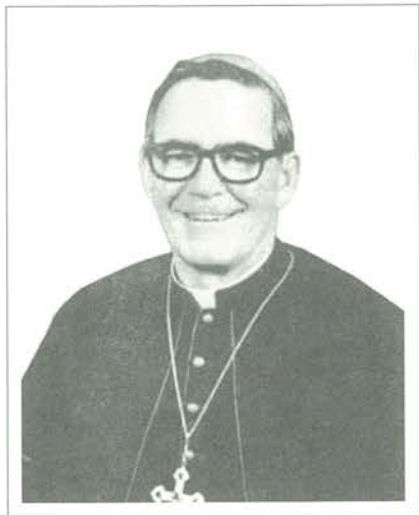
3. 본당은 성소의 못자리이다. 이 못자리가 본당 사제의 관심 여하에 따라 풍요롭게도 하고 황폐화되게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본당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소 계발과 육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모든 본당마다 예비 신학생회를 조직하고 본당신부 직접 주관하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며 교구 성소 담당신부와 긴밀한 협조를 갖도록 한다.

대전교구장 경 갑 룡 주교

복음화하는 교구 공동체

금년부터 2000년까지를
‘복음화하는 교구 공동체의 해’로 정하여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두스)를 통해
이를 본 궤도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길 모 주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와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천년기를 준비하는 오늘의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와 환경 파괴, 가치관의 상실, 청소년 문제, 특히 가장 가까운 이웃인 복녘 동포들의 굶주림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시대의 징표라 생각합니다.

1. 2000년 대희년을 앞두고

앞으로 2년 후, 우리는 그리스도 강생 2000년 대희년 축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대희년의 기본 목표는 첫째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강화이며,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 심화입니다(제삼천년기, 42항).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강생 2000년을 ‘주님의 은총의 해’로 선포하고, 모든 신자들이 이 은총의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제삼천년기, 14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대희년을 맞이하기 위해 전세계 교회가 함께 걸어가길 희망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교구 역시 첫해인 1997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강화에 힘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1998년을 특별히, 교회를 성화시키는 성령계 봉헌할 것입니다. 이는 “희년 준비의 일차적 과업은 성령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포함하며,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활동하신다.”(제삼천년기, 45항)는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대희년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1995-1997) 동안 우리는 “복음화하는 본당 공동체의 해”를 지냈고, 금년부터 2000년까지를 “복음화하는 교구 공동체의 해”로 정하여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두스)를 통해 이를 본 궤도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두스) 준비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1996년부터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두스)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두스)를 위한 특별 사목서한(1997년 6월 29일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두스)의 준비와 개최는 교황님의 뜻에 따라 대희년을 뜻깊게 준비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시기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와 사도가 되게 하는 시기가 될 것이며, 교황님과 전세계 교회와의 친교와 일치로 촉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특히 가난한 이웃, 장애인, 청소년과 노동자,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준비위원회와 함께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두스)의 준비방법과 절차를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구내 본당과 교구의 실태를 진단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우리의 현실을 성찰할 기준이 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문헌과 정신을 공부하는 공의회 학교를 개설하였고 올해에도 이 학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준비된 설문 조사 작업과 의견 청취 모임은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교구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설문 작업과 의견 청취 모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 작업을 통해 마음에 담고 있는 의견들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의견들은 의제 선정과 의안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두스)가 교구 공동체의 쇄신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본당 쇄신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본당 공동체들이 본당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하는 기회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본당 총회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청소년 사목계획에 대하여

오늘날 세계는 세계화, 정보화 등 문명사적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

회의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민주·복지·통일 시대를 주도할 젊은 일꾼들을 양성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당면한 중대 과제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며, 영혼과 정신과 육체(1대살 5.23)의 강인함을 지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일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중한 입시 교육과 유해한 환경 속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교회의 사목적 관심과 배려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올바르게 책임있는 대안과 희망을 제시해 왔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고등 학생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대학생과 청년 공동체는 70~80년대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어렵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청소년 사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목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그들 스스로 복음화와 신앙 성숙의 주체(평신도 교령, 12항)가 되도록 일선 사목자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요청됩니다. 이 사목은 교리교육을 통해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덕성과 감성을 계발함으로써 온전한 신앙인으로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목적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구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개년 계획을 시행할 것입니다.

- 준비기(1998년): 사목연구위원회 구성, 지도자 양성과 기금 조성.
- 실행기(1999년): 교리교재 편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심화기(2000년): 보완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 대회년 축제.

4. 인천 가톨릭 대학교 건립에 대하여

금년은 인천 가톨릭 대학교의 마지막 3단계 공사를 끝마치는 해입니다. 교구민들의 많은 희생과 봉헌에 힘입어 올해에는 신학원(교수 사제와 신학생 숙소)과 수련원, 성당 공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학기부터는 총 160명의 신학생 가운데 90명이 인천 가톨릭 대학교에서 수학하게 될 것이며, 500여 명의 예비신학생들이 성소의 꿈을 키워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본당과 신자들께서는 교구 공동체의 심장부인 신학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건립 현금을 봉헌하지 않은 본당과 가정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5. 소공동체 모임의 활성화에 대하여

금년 역시 우리는 복음화와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반모임이 강화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이 반모임은 우리를 선교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성체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사

کم과 섬김과 나눔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반모임에서의 복음묵상 나눔을 통해 성사생활과 기도의 삶이 생활화되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잃은 양과 새로운 양들을 찾기 위한 활동이 더욱 깊이있게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신자들께서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반모임에 성실히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체험은 교회의 신비를 알아듣게 합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복음화하는 교구 공동체'의 첫해인 1998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 지기를 기원합니다.

주요 사목지표

1. 2천년 대희년을 위하여

- 가) 성서 특히 4복음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기도한다.
- 나) 금년에는 다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읽고 공부하도록 힘쓴다.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계시 헌장, 현대 세계의 사목 헌장,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 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총 4권, CCK 발행)에 대해 계속 공부한다.
- 라) 평신도 예비신자 교리교사 양성과 재교육
- 마) 기도와 보속으로 개인과의 만남을 통해, 신자 한 사람이 최소한 예비신자와 냉담자 한 사람씩 입교시키고 회두시킨다.
- 바) 지속적인 성제조배, 레지오 마리아, 꾸리실료, 성서사도직, ME, 성령쇄신, MBW, 우리 농촌 및 환경 살리기, 불우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 G.R.I(Gabriel Richard Institute) 지도자 강습회와 같은 모임을 통해 신심을 강화한다.

2.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두스)의 준비

- 가) 의견 청취 모임 계속
- 나) 공의회 학교 계속
- 다) 각종 설문 조사의 추진
- 라) 본당 현실 진단과 본당 총회에 대한 지원
- 마) 교구 현실을 진단하기 위한 교구 진단 추진
- 바) 교구 심벌 마크 제정 등 교구민의 참여를 위한 각종 홍보·기획 사업 추진

사) 북한 동포 돕기와 통일사목 준비

3. 청소년 사목계획

- 가) 사목위원회 구성과 운영
- 나) 지역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법인체 운영
- 다) 청소년 사목의 중요성 홍보와 부모 교육
- 라) 중·고등부 교리교재 편찬
- 마) 본당 청년 활성화를 위한 청년 순회 미사
- 바) 대학생 연합회와 본당, 5지구(지역내 학교 대학생회)의 유대 형성과 공동 행사
- 사) 지도자 양성과 기금조성
- 아) 강화 청소년 야영장 시설 보완

4. 교구 신학교 및 성소자 계발을 위해

- 가) 신학교 건립을 위한 지속적 기도 운동 전개
- 나) 신학교 건립 기금 납부자 독려와 기금 마련 추진
- 다) 신학교 건립과 재정 현황 홍보
- 라) 신학교 건립추진위원회 각 분과 업무 활성화 노력
- 마) 성소자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 노력 강화
- 바) 예비신학생과 신학생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자료 수집

5.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 가) 지속적인 단계별 '복음화와 소공동체' 연수 교육 실시
- 나) 본당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획과 사업 추진
- 다) 복음화와 소공동체를 위한 자료 수집과 정보 교환
- 라)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반모임에 적극적인 참여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

성령의 해

성령은 우리 힘ियो 희망

대회년을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 믿는 이들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최 덕 기 주교



친애하는 수원교구민 여러분과 모든 가정,
그리고 교구내 모든 본당 공동체와 수도 공
동체, 여러 기관 공동체에 인사드리며 자비
로우신 하느님께서 은총과 평화를 가득히 내
리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탄신 2000
년이 되는 대회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
신 2000주년을 맞으시는 우리 주님께 더욱
복음화된 세상을 선물로 드리기 위하여
1997년을 “성자의 해”(우리의 믿음·행복의
해)로 지냈고, 1998년을 “성령의 해”(우리의
힘ियो 희망의 해)로 지내고자 합니다.

특히 1998년 한 해 동안 성령께서 많은
구원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 전체가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마
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사목교서’를 여러분에
게 보내드리오니, 모두가 이 교서를 공부하
고 실천에 옮겨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
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 부
족과, 성령으로 가득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이 되지 못함으로써 빚어지는 안타까운 일들
을 보고 듣고 있기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립
니다.

여러분 중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쇠신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두운 그림자와 죄악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
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새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은 이 사목교서가 말하
고자 하는 뜻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 삼위일체론적이고 구세사적으로 본 성령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하셨고(창세 1장)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도 사람이 되신 말씀(=성자)을 통하여(요한 1, 14) 성령의 힘으로(루가 1, 35; 4, 14과 사도행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 당신 아들(=성자 예수 그리스도)을 세상에 파견하셨고 당신 성령을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 전해준 구원시기인 메시아 시대의 특징적인 점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오게 될 새시대, 즉 새 하늘과 새 땅(이사 65-66장)으로서, 이는 마른 뼈들과 같은 사람들 안에 하느님의 영인 숨을 불어넣어 주어(에제 37장) 그들이 하느님과 맺게 되는 새 계약(에레 31, 31)으로 이루어진다.

2. 성령의 역할

성령이 누구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삶과 활동을 묵상해 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본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제자 수업을 받고 있던 열두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제자 이기는 하였으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 전파자가 되기에는, 즉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그분의 복음화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았음을 볼 수 있다. 제자들의 자리다툼(마르 9, 33-34)과 예수님의 수난예고에 대한 인간적 거부(마르 8, 31-38), 스승이신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도망간 일(마르 14, 50),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뵈고도 그때뿐이어서 부활하신 분이 사라지면 불안해 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있었던 사실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음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으니 그들의 오금이 펴졌고 입이 열렸던 것이다. 성령의 힘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들의 가슴은 주 그리스도께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라 문을 박차고 나가 군중 앞에 나타나 대담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시라는 것과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었다(사도 2, 14 이하; 4, 20). 사도들의 정신과 삶이 이와 같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이었다. 성령강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혼, 얼을 받은 그들은 이렇게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만을 위해 살기로 함으로써 지금까지 가졌던 자신들의 이기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생각과 생활을 벗어버리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었다. 성령

의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던 하느님 나라 건설을 이어받아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봉사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즉 사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3. 내재하시는 힘이신 성령

성자께서는 인간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 한 분 안에 오셨지만 성령께서는 성모님과 제자들에게, 즉 동시에 여러 사람들 안에 은총으로, 내재하시는 힘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어 그들이 하느님 나라 완성이라는 공동 이익과 목표를 위해 봉사하고 서로 일치하게 하신다. 성령은 하느님의 혼, 열, 정신으로서 하느님의 힘을, 활력을(power, dynamic)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을 받는 분들 안에서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자기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열정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령의 이 힘은 사도들 안에서도 나타났다.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되어있는 바로 이 점이 요한이 베포 물의 세례와 달리 사도들의 안수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세례의 특징으로 나타난다(사도 1,5; 11,16). 우리는 성세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성령을 받는다. 그 성령을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마 8,15)라 부르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갈라 5,22) 등의 내적 열매를 맺게 되고,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힘과 은사적 선물(1고린 12,4-11)등의 외적 능력들을 받는다.

카리스마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능력과 재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리고 강해져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쓰여지는 것을 말한다. 카리스마, 즉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즉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1고린 12,7) 주어졌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도록 이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새롭게 ‘예’라고 대답하고 사도들처럼 다른 이들의 구원에 일조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령쇄신이라 한다. 수에넨스 추기경님은 성령쇄신의 이 점을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하신다. “성령쇄신의 가장 큰 힘은 복음화 작업의 분야에 있다. 성령의 능력의 체험을 통한 예수님과의 개인적(개인주의적 의미가 아닌) 관계의 회복은, 성령쇄신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 안에 신앙을 일깨워주며, 그 신앙을 개화시켜 성장하도록 촉진시켜 주는 기초로서 의식하게 해주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변화(metanoia)한다는 뜻이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인식에 도달하도록 인도하고 또 자신도 인도받는다라는 뜻이다. 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미구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넘겨주실 그 나라를 갈망한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성령의 복음화 역할을 두고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이

시다.”고 말씀하신다(제삼천년기, 45항 참조).

4. 성령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들

성령이 교회를 완전히 떠나신 적은 없지만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성령을 잃고 산 적은 있었다. 현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중에도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와는 아주 다른 열매를 맺는 데서 성령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교회생활과 개인 신앙생활에 생동감과 활동이 없고, 기쁨, 감사, 평화가 없으며, 이웃사랑 실천과 전교활동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짐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의무감으로 느껴져 기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살아가는 데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교세성장의 둔화, 영성적 활기의 부족, 교회의 세속화, 신앙의 이기주의, ‘믿음 따로, 삶 따로’ 등이다. 그리고 신자들의 신앙생활에는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은폐시켜 가며 살고, 신자 가정에서 자녀들의 세례를 기피하고 주일미사와 관공성사를 꺾하여 냉담자로 변해가고, 소공동체 생활을 부담스러워하고 천주교 신자의 양심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며, 급기야는 하느님과 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을 망각하고 의식하지 못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받지 못함으로써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다.

성령을 잃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단지 인간적인 박애정신에만 뿌리를 둔 신앙생활로 변질되고, 순 사회적이고 자기수양이나 사회구조 단체로서의 교회생활로 전락하고 만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대로 성령은 교회의 혼이요 세말까지 교회를 교회이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데, 그분을 망각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마치 혼빠진 육신 또는 정신나간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5.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이와 같이 잘못된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나” 또는 “우리” 중심적 이기주의로부터 이웃의 구원과 공동체 이익으로 해방시켜야 한다. 즉 성령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는 신자들과 교회가 되어(봉사생활과 전교생활로써)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살아 움직이는 교회와 신앙인들로 바뀌어야 한다(기도 및 성사생활과 공동체생활로써).

성령의 활동과 은사의 열매들은 오늘도 계속된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실현되기를 원하신다. 성령께서는 영이시기에 볼 수 없는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봉사의 모습으

로 역사 안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 완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때 비로소 성령의 소망을 채워드리는 것이요 성령께 충실하는 것이며 성령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세상 구원 사업을 위한 하느님의 동업자들이 되는 것이다.

6.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동감 있고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구성원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이 참여는 교회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성령으로 충만함) 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이며 그분의 말씀 안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한 15.1-8),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흐르듯 하는 풍성한 삶(요한 7.38-39)을 뜻하며,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불을(루가 12.49) 의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삶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1. 모든 죄(범한 죄와 소홀히 한 죄)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2. 성령이 누구이시며 왜 오셨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영적 보고를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골로 2.9-11). 한마디로 말해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하느님 주도가 아니라 인간 주도의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3. 하느님을 겁내지 말고 신뢰해야 한다. 하느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시기에(요한 3.16; 로마 5.8) 겁내지 말아야 한다(1요한 4.18). 하느님이 우리의 계획을 바꿀까봐,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지나 않을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재미를 빼앗아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성자를 보내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믿어야 한다.
4.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예수께서도 기도하실 때 성령이 오셨고(루가 3.22), 제자들도 기도할 때(사도 1.14; 4.31; 8.15 이하; 13.3; 루가 11.13) 성령이 임하셨다.
5. 성서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

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갈라 3.2)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1베드 1.23).

6.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1.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내맡기는 삶을 살게 될 경우.
2.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넘치는 감격과 사랑을 가지게 되고, 무미건조하고 자기중심적이며 기복적, 한풀이식 기도에서 찬미와 감사, 자비와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로 변할 경우.
3. 이웃을 향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지니며, 전교에 대한 열의와 대담성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힘과 생명과 활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면 성령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시다는 것을 믿어도 좋을 것이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1. 신앙생활을 집으로, 의무감에서 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간이 걸어가야 할 참 삶의 길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2.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3. 성서 읽기를 좋아한다.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데 맞들인다.
 4. 전교하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하느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체험하고 있기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전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5. 사랑 실천에 강한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사랑 실천에 솔선하고,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때로는 지속적으로 돌보며 봉사한다.
 6. 교회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이다.
-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 모두 이런 사람들로 변화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느님께서 우리가 청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다(루가 11.11-12)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마태 28.20).
2.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로마 12.1-2).
3. 하느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도록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야 한다(에페 6.18; 1사무 12.23).
4. 하느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히브 4.12; 사도 17.11; 시

편 119,11).

5.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에페 4.30)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1데살 5.19).

6. 항상 성령을 갈망해야 한다(야고 4.5).

7.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로마 12.1-2).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의 생활을 버리고 내가 하느님과 이웃을 오롯하게 섬기는 생활을 늘 새롭게 하여야 한다.

수원교구 형제 자매 여러분, 1998년 “성령의 해”를 맞아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성령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이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길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활기 있고 생동감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이는 삶이 되어, 우리 자신의 복음화와 세상의 복음화가 알차게 이루어지고,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탄신 2000돐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아직도 복음화가 시작단계에 불과한 아시아 대륙의 한편에 있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복음화부터 시작하여 경기도민의 복음화 그리고 북한 선교, 더 나아가 중국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살인, 강도, 마약 등 강력범죄와 생명경시 풍조, 환경파괴, 부정부패, 윤리도덕의 상실, 가정파괴, 청소년문제 등 사회 전체가 침몰하는 것을 막고 인간성을 회복하여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주역이신 성령을 반드시 힘입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 믿는 이들 자신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빛을 따라 살아가신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바오로 정하상과 순교선열들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도 늘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이 대회를 알차게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새로운 봄을 맞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꼭 오셔야 합니다. 이 같은 새 성령강림이야말로 오늘의 우리 교회와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의 새로운 봄을 맞기 위하여 늘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사랑의 불을 밝혀주소서, 당신의 얼굴을 부어주시어, 모든 이들이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수원교구장 최 덕 기 주교

사랑의 문화 건설의 해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하느님 사랑의 문화로
넘쳐 흐르게 하는
문화의 복음화에 앞장서야겠습니다.

김 지 석 주교



친애하는 원주교구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신자 여러분!

우리 원주교구는 2000년 대회년 준비 두 번째 해인 '성령의 해'를 맞아 1998년을 '사랑의 문화 건설의 해'로 지내고자 합니다.

지난해 '그리스도인 가정의 해'를 지내면서 가정의 존엄성과 복음화의 참 의미를 추구해 온 우리는 가족간의 사랑을 뿌리로 하여 모든 문화와 생활공간에 하느님의 사랑이 반영되기를 지향하며 걸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적 가장, 촌락, 문맹사회에서 민주주의적 자유, 평등, 도시사회, 문자사회로 급변하면서 일대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학교와 사회 안에서도 교사와 지도자들이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들의 가르침이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고 학생들은 진정한 인격적 가르침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공부에 전념, 점수기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가출 청소년, 탈선 학생, 비행 학생이 늘어나고, 이는 점차 사회적인 문제화로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인은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상호비난, 폭로전으로 이전투구하고 있으며, 경제도 공황의 위기를 맞은 채 각종 범죄와 사회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세상 한가운데 서있기에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율성과 능력만을 우선시하는 실용적 유물론이 교회 안에

침투.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화와 기쁨 등 정신적 가치를 경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발전과 성장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는 “모든 회년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에 기초한 기쁨, 회개의 기쁨임”(제삼천년기, 32항)을 자각하고 ‘성령의 해’에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화해의 참 기쁨을 누리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하느님 사랑의 문화로 넘쳐 흐르게 하여 문화의 복음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1. 사랑의 문화 건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헌장 53항에서 “문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이 자연과 사람의 본성에 숨겨져 있다가 사람들의 노력으로 개발된 선과 가치를 뜻한다. 사람은 문화를 통해서만, 즉 자연과 본성에 숨겨진 선과 가치를 개념으로써만 참되고 완전한 인간성에 도달한다는 것이 인격의 특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문화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요 숨결과도 같은 것입니다. 문화는 곧 환경이요 우리의 옷입니다. 민족마다 제각기 고유한 문화가 있고, 사회 각 분야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과 역사를 통해 정착되는 것입니다. 이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발휘하고 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강압적으로 형성되어서는 아니되고 유구한 세월을 거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서구의 문화가 있는가 하면, 우리 한국 민족이 쌓아올린 한국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어느 것이 더 훌륭하고 우수하다고 평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죽음과 저주의 문화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 그리고 사랑의 문화입니다. 이 사랑의 문화는 모든 이가 한 하느님을 섬기고 받드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바탕을 둔 문화로 하느님의 성령께서 베풀어주시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일치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구세주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룩하신 사랑의 문화로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1고린 9, 22)이 되도록 하는 기쁨과 화해입니다. 성령이 샘물처럼 솟아나오는(요한 7, 38 참조) 이 사랑의 문화는 모든 이가 스스럼없이 사귄다 나눔을 갖게 하고 서로에게 존경심을 갖게 하는 섬김의 삶을 이룩해 줍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간에, 그리고 형제자매간에 행복과 삶의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안에서 서로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나눔의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간

에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삼가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어려움 속에서 인내롭게 참고 견뎌 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사랑으로 모든 이가 생명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문화형태, 즉 축제나 행사, 나눔의 장을 통해 하느님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묵상하게 해줍니다. 특히 남북의 분단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 겨레로서는 기아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을 위한 기도 운동뿐 아니라 실질적 나눔의 운동, 모금을 통해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사랑의 문화를 같은 동포로서 나누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자연스러운 염원이라 할 것입니다.

2. 성사생활의 심화와 소공동체의 활성화

그리스도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압권인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가톨릭 교리서를 읽고 신앙의 참뜻을 알아 이를 생활화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상세한 연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 잘 깨닫고 하느님 백성의 신앙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제삼천년기, 42항 참조).

우리는 먼저 하느님의 자녀로서 주일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의 희생제와 친교제인 미사 성제의 의미를 깨달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자주 평일미사에 참석함은 물론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 앞에 기도드리는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고해성사로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하고 성체를 자주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생활하신 양식으로 풍요롭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서를 읽고 묵상함으로써 세속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서의 내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체를 모신 영혼은 어떠한 세상의 위협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구, 본당 차원에서 행하는 각종 피정, 교육,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영적 양식을 취하여 자신을 수련하고 단련하는 데에도 깊이 맛들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깊은 신앙의 무장은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이는 바로 믿지 않는 이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들이는 복음전파의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각 본당에서는 본당 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전교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 예비신자를 모집하고 교리반을 이끌어 나가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고 각종 사도직 단체, 신심단체와 모임의 활성화로 복음의 꽃을 피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동체인 구역·반 모임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소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복지시설 방문을 실시함은 물론 병자 방문, 상가 방문, 기도 등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3. 청소년 문화의 육성과 개발

청소년은 한 나라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청소년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미래의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각종 건전한 문화와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교리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일학교 교사 등 청소년 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최대한의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각 본당에서는 교리교사 양성에 힘쓸 뿐만 아니라 교리교사의 확보와 이들을 통한 청소년 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지속적으로 쏟음으로써 우리 교회가 참으로 생명력 있는 힘찬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청년 사목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자칫 세속적인 흐름에 휩쓸려 방황하기 쉬운 이들이 교회 안에서 건전한 활동을 통해 청년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구에서 청소년 자원 봉사자 센터를 통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갖도록 하고, 이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에 기여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준비를 갖추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 본당에서 성인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소공동체 모임, 구역·반 모임을 청년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워크숍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소공동체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주교구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신자 여러분!

1998년 성령의 해를 지내면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깊이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참 기쁨을 주시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으로 하느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분열이 아닌 일치를 이루는 하느님의 성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원주교구장 김 지 석 주교

세부지침

1. 사랑의 문화 건설

- 1) 도덕성 회복 운동 전개(부모 공경, 바른말, 고운말 쓰기, 퇴폐 폭력 비디오·영화 안 보기 운동, 근검절약 운동, 질서 지키기 운동 등)
- 2)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북한 동포 돕기 운동 전개

2. 성사생활의 심화

- 1) 주일 바로 지키기 운동 전개와 잦은 평일미사 참석 권장
- 2) 신자 배가 운동을 통한 전교의 활성화
- 3) 각종 피정·교육 참석을 통한 신앙생활 쇄신
- 4) 잦은 성체조배, 교해성사 권장

3. 청소년 문화의 육성과 개발

- 1) 주일학교 교사 등 청소년 지도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양성
- 2) 대학생, 청년 사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 3)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나눔의 문화 형성
- 4) 청소년 소공동체 운동 전개(청소년 시기부터 소공동체의 나눔을 학습하기 위해)

4. 소공동체의 활성화

- 1) 구역장·반장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 2) 소공동체 기도 모임 활성화
- 3) 소공동체 나눔의 운동 전개(불우이웃 돕기, 복지시설 방문)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이제 쇠신의 실마리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원을 바르게
깨닫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이 문 회 대주교



“2천년 대회년을 바라보며”(제삼천년기, 21
항) 교구가 당면한 과제를 토의하고 쇠신하
기 위하여 교구 시노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당 기초공동체들의 의견 수렴 과
정을 거쳐 성직자, 수도자, 자녀교육, 가정
복음화, 예비신자, 새 본당상, 사회복지에
관한 7가지의 초안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 이 초안을 놓고 활발한 토의를 통하여 전
교구민의 합의에 이르고자 합니다.

교구 시노드는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소
수의 전문가들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 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시노드)’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신앙
인으로서의 신원과 자질을 알고 쇠신의 삶
을 사는 것이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
느님의 뜻을 드러내는 새 복음화를 정착시
키는 것입니다.

교구 시노드의 목적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데 있으며, 바로 우리가 먼저 신앙인답게 살
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
기 위해서는 함께 의안을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의 문화가 드리워진
세상에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목
표 의식과 인내와 확신과 연대 의식이 없이
는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결집된 힘이 요구
됩니다.

편리와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가득 찬 세상
안에서 교회가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신자 개인의 개별적 선택과 노력보
다는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략을 가지

고 대처해야 합니다. 2천년 대회년을 앞두고 구원의 은총을 받겠다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구원의 특은을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준비로 쇄신과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동안 교구 시노드를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제는 시노드의 결실과 과제를 알아 여러 가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적극성이 어느 때보다 깊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까. 가정의 복음화를 통하여 내가 속한 기초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본당 공동체가 결집되고, 본당 공동체가 초대교회 시대처럼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로 바뀌어야 합니다. 초기의 한국 교회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공소회장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전례와 기도생활로 신앙을 증거하는 터전이 되었고, 성직자들의 영입으로 결집된 힘이 한국교회의 모체가 되었듯이, 이제는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만이 참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느님이 친히 인간의 부성과 모성 안에 현존하시므로(가정 교서, 9항) 새 생명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며 가정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새 복음화를 이루는 것은 바로 가정 성화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죽음의 문화에 빠져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쇄신의 실마리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원을 바르게 깨닫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가정이 모여서 기초공동체를 이루고 이 기초공동체들이 모여서 본당 공동체가 되며 본당과 본당의 유대와 결집(공동사목)으로 어우러진 우리 교구의 '8개 지구공동체'를 그 축으로 하여 3천 년기를 맞는 활기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선조 신앙인들의 지혜와 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1998년 한 해가 시노드의 결실을 거두도록 우리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쇄신의 해가 되어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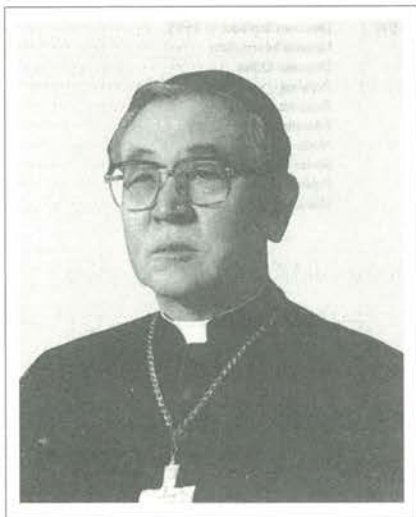
1. 대회년의 정신에 따라 교구 시노드 의안을 공부합니다.
2. 본당의 기초인 소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3. 청소년들의 신앙생활과 인성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집니다.

대구대교구장 이 문 희 대주교

성령에 힘입어 교회의 모습을 쇄신하자

성령의 인도로 사는
새로운 모습의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이 갑 수 주교



1. 위기에 선 오늘의 사회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고, 자동차 5위 생산국, 1천만 대 보유국이 되어 겉모양은 선진국의 모습을 취했는지는 모르나 내적으로는 아직까지 사회의 경제와 국민의 문화가 열악한 수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보와 삼미 등 굴지의 대기업들의 부도와 도난은 나라 경제가 얼마나 정체되어 있는지,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거품 경제인지 가히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경유착하에 로비 문화와 비자금 조성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 국민은 사치와 과소비 습관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나리 양 유괴 사건은 신용카드 빚 때문에 어린 소녀를 숨지게 한 사건으로, 범인이 임신 8개월의 여성이며 예술인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상기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현상황을 망각하고 분수에 넘치는 소비·퇴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이런 현상들은, 오늘의 세대들이 자기 억제력을 잃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며, 마음속에 도사린 악마성을 억누르지 못한다고 하는 무서운 사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과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점차 인격 장애자, 성격 파탄자의 경향을 띠

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대의 이러한 인성과 자아 마비의 현상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올바른 가치관 정립, 인명 중시, 남을 생각하는 풍토 등은 점점 사라질 것이요, 생명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2. 생명을 되찾아야 할 교회

사회의 세속화의 바람이 교회인 나무를 뒤흔들자 싱싱하고 탐스럽게 보이던 가지들인 신자들이 부러져 나가고, 종교적 실천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양에서뿐 아니라 질에서까지 하락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계신자수의 증가를 앞지르는 냉담자의 지속적인 증가, 주일미사 참여율의 하락세, 젊은 계층의 교회와의 단절 현상 등을 보면 이 교회 안에 복음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가 이 시대와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못할 때,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일원이 된 신자들을 수용하지 못할 때 교회의 생명력은 상실된 것이요,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주일미사에 참석하는 수계신자의 비율이 37.6%(총신자의 24.1%)에 지나지 못한다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위험 수위에 와있음을 말해주는 우리 교회의 허약한 단면입니다.

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본당의 대형화, 신자들의 중산층화, 사제들의 관료화, 신자들의 재교육 부진 등 복합적인 원인을 살펴 우리 교회의 사목적 전반을 새로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유럽처럼 관광객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교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빈약한 오늘의 교회, 속이 빈 교회의 현황을 다시 인식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 자신이 먼저 하느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이 사회와 이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의 생명을 다시 소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생명의 숨결이신 성령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불어넣는 비와 같이(이사 32,15: 44,3; 예제 36,25; 요엘 3,1 이하) 그리고 마른 뼈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살리듯이(예제 37,6) 생명을 주고,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기운입니다(창제 1,2; 시편 33,6). 그러므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고백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는다”(Credo in Spiritum Sanctum vivificatem)고 고백하며 성령이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심을 강조합니다.

(1) 성령으로 파견된 그리스도, 주님

예수는 자신의 전생활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행동하고 계십니다(루가 4.14). 성령의 인도로 예수는 갈릴래아로 가서서(루가 4.14) 그 영에 의해 악마와 대결하고(마태 4.1) 마귀 들린 자들을 풀어주며(마태 12.28)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루가 4.18). 그분은 성령의 힘 안에서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 영을 통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셨으며(루가 10.21) 마침내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흠없는 제물로 바치셨습니다”(히브 9.14).

성서는 예수가 하느님의 성령으로 가득 찬 분, 즉 그의 삶이 당신의 사명과 함께 성령으로 인도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달리 말한다면 성서는 그분이 “성령의 인도로”(마태 4.1; 마르 4.1)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예언자이며 야훼의 종이심을 드러내십니다.

(2) 성령은 영적 · 교의적 만남의 자리

교의란, 사도들과 그리스도 공동체가 생활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하느님께 대한 체험의 표현 또는 보편적 정의(定義)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 즉 신 체험을 인격적이고 생생한 것으로 되게 합니다. 한 교회학자는 “성령이 없으면 하느님은 저 멀리 계시네, 그리스도는 과거에 머물러 계시고, 교회는 단순한 조직일 뿐이네. 권위는 지배일 수밖에 없고, 선교는 선전일 뿐이네. 전례는 푸닥거리 이상의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교 생활은 노예윤리이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주는 부활하여 왕국의 진통에 신음하네. 부활하신 그리스도 거기 계시고, 인간 행동은 하느님다운 것이 된다네.”라고 표현함으로써,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시초에뿐만 아니라 그 영적 성장과 발전의 전과정에 일관된 영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성령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를 “되새기게 하여”(1요한 14.26)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신자들도 주님의 행동과 말씀에 부합될 수 있게 하며,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알아듣는 지식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 태도를 가르쳐주십니다.

2) 성령과 참다운 그리스인

성령은 그리스도 신자 안에 깃들인 새 생명의 내적 원리입니다. 즉 부활의 원리로(로마 8.11) 성령은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원리 곧 육정(로마 7.5 이하)을 내몰으시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시어 신앙의 원리(1고린 12.3), 초자연적 지혜의 원리(1고린 2.10-16), 사랑의 원리(로마 5.5), 거룩함(로마 15.16)과 윤리도덕(갈라 5.16-25)과 사도직의 용기(필립 1.19)와 희망(로마 15.13)과 기도(로마 8.26 이하)의 원리가 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니다. 성령은 영성의 스승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1) 성령의 인도로 세상에 사는 새로운 모습의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시도록 자신을 개방하는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로마 8.15-16). 그러기에 성령을 받아들인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1고린 12.3).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를 위격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에 대한 재발견, 가난에 대한 관심, 사도직에 대한 열성, 기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이는 성령의 힘으로 믿기 어려운 경험을 했고 어떤 이는 감추인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성령은 영성의 초기에는 숨어서 알려지지 않는 모양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서의 말씀, 교회의 가르침, 강론, 영적 지도, 기도와 묵상, 또는 자기 성찰, 독서, 이웃의 모범과 권고, 일어나는 사건, 사물과 대자연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속삭임의 수단이나 영감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로 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그들이 느끼는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묵은 인간이 새로워지고 사랑과 겸손과 기쁨과 친절(갈라 5.22-24) 등을 실제 생활에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어주십니다(갈라 5.16-26).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성생활에서 제거해야 할 것들의 판단의 기준은 성서에 나오는 징표(1고린 12-14장)로써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새생활을 하는 성숙한 신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례적 은사를 받지 않은 성인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은 성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이고, 하느님 사랑의 보증서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만나는 응접실이고 우리와 그리스도를 결합시키는 접착제입니다.

3) 성령과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애당초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성령이 없는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도유된 그리스도의 연장(延長)입니다.

(1) 성령과 초대교회

“교회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하느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다.”는 이레네오 성인의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증언하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복음서라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살았던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성령강림이 있기까지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령강림날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어 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봉헌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용감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사도 2,1-14). 그들의 설교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였으며(2,2) 그들의 지혜와 언변은 당대의 학자들을 침묵시켰고(4,13-14; 6,10) 악인들의 생각을 폭로하였습니다(5,1-11; 8,18-23). 성령은 또한 일곱 부제(6,1-6)와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선택하여(13,2)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해야 함을 깨닫게 하였고(8,4-17; 10,1-48), 그리하여 사도들은 사마리아, 시리아, 소아시아, 희랍 반도, 로마에 이르기까지 항상 성령의 인도로(20,22) 전도의 발길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순교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7,54-60; 12,1-2).

성령은 초대교회 신도들에게 뜨거운 형제적 사랑을 부어주시어 재산을 공유할 정도로 서로 일치하고 도왔으며, 기도와 예찬과 찬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2,43-46; 4,32-37)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애에 탄복하게 했습니다(2,47).

또한 초대교회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다양했습니다. 그중에 언어의 은사(2,4,8-11; 10,46; 19,6), 예언(11,27-28; 13,1; 21,10-11 등), 가르침(13,1), 기적의 능력(2,43; 6,8)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무와 평화, 기쁨, 용기, 신뢰와 같은 풍성한 내적 결실들과 성령 체험이 공동체 위에 광범위하게 베풀어졌습니다.

이런 성령의 체험들은 초대교회로 하여금 위기와 난관을 극복하게 하고, 신생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자신이 종말론적 공동체임을 자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살아 계속 활동하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은 교회의 전체 여정에 함께하심으로써 장차 영광의 ‘첫 열매’이며 ‘보증’이 되셨습니다(로마 8,23; 고린 1,22).

(2) 현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교회와 본당 사목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관리의 대상인 단순한 하나의 조직체가 아니라 위격적이고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신비체요, 성령계로부터 생명을 얻는 신비체입니다.

사실 전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조직적인 기술 덕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이가 하느님을 체험했고, 자신이 변모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에 대한 신앙과 성령쇄신에 성직자·수도자의 적극적

인 관심과 참여는 복음 선교와 본당 사목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신앙인들은 성령의 선물들을 목말라하는 새로운 갈증을 느끼고, 우리 자신을 쇠신하고 치유하시는 하느님의 현존과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처음에는 성령으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기적만을 원하는 신자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들이 거듭 쇠신·참회하고 주님을 뒤따르도록 영성적·사목적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와 사목자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 즉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을 보존하라.”(1데살 5,19-20)는 당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새로운 희망을 품은 교회

1) 하느님과 타인에 대한 개방

교회는 제도라는 것이 있는 한, 세대의 흐름에 따라 그 시대의 징표들을 읽고 곳곳에서 일어난 예언자적 증거에 주의력을 집중시키면서 주기적으로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재검토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자신에게 충실하도록, 즉 예수께 충실하도록 돕는 모든 건설적 비판에 자신을 개방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다음과 같이 권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겸손과 감사의 정으로 비판을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합니다. 로마는 자기에게 들려오는 정직한 목소리에 귀를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옹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친구이자 형제의 목소리일진대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재검토는 교회의 일선 사목의 모든 분야에 즉 사도직협의회, 사회사업, 의료사업 등에 요구되고, 그 사목들이 더욱 복음적이 되고, 그 원천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교회가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타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께 민감한 신앙인이 되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주님이 우리 곁에서 걸어가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2) 힘찬 그리스도 공동체인 본당의 예언자적 사목 자세

성령께서는, 마치 그 옛날 야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에서 인도했듯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인도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이 세상 순례길에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살아계신 숨결이십니다.

교황 요한 23세께서는 공의회를 성공을 기원하면서 기도하실 때 “새로운 성령강림으로써 지

금 우리 시대에도 당신의 기적들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라고 교회의 쇄신을 염원하였습니다. 2천년 대회년을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와 더불어, 우리도 금년 "성령의 해"를 맞이하여 지난 세기의 옷을 그대로 걸치고 낙후된 방법으로 복음화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 현대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내적 자세와 제도적 개혁, 사목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교구의 모습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쇄신 작업에서 유의할 점은 교회를 마치 무슨 조직인 양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굳히기에 갖은 노력을 다할 때 교회는 하나의 기계로서의 가동이지 결코 생명체로서의 가동이 아니게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그리스도 신비체인 생명체라고 생각하기보다 조직이나 기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목 실천을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려는 유혹을 언제나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과 수도자와 성직자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아마 영적 영역 안에 담백 잠겨 영적 감각을 기르는 일,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 영적인 것을 숨쉬고 맛보는 영적 사람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참된 희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로마 1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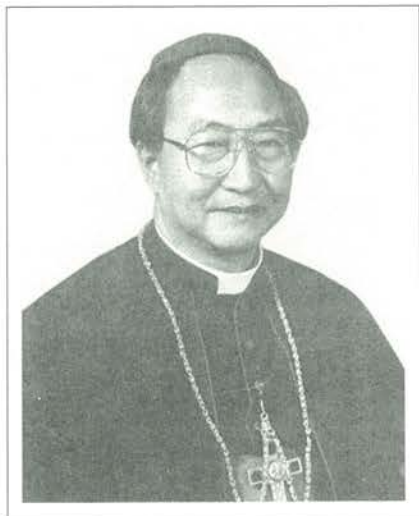
부산교구장 이 갑 수 주교

교구 공동체의 복음화

1998년은 교구 설정 40주년과
2000년 대회년을 앞둔 뜻깊은 해입니다.

교구 공동체의 발전은
새로운 복음화에 달려 있습니다.

정진석 주교



친애하는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교형 자매 여러분.

1. 1997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구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복음화”의 둘째 해 사목지표인 ‘소공동체 복음화’를 위해 정성을 기울여주신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각 가정과 소공동체를 더욱 복음화하여 주셨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던 100명의 성직자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양업고등학교와 현도사회복지대학의 개교 그리고 청주성모병원 개원의 기쁨을 마련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2. 1998년은 교구 설립 40주년이며, 전세계 교회가 2000년 대회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성령’께 봉헌된 은총의 해입니다. 이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 희망찬 새해를 주님께 봉헌하며, ‘새로운 복음화’의 셋째 해 모토인 ‘교구 공동체 복음화’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교구 공동체의 복음화는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17)라는 주님의 간구하심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드러내는 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교구에 커다란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란 교구 공동체 구성원의 내적 쇄신과 교회의 근본 사명인 선교, 즉 ‘복음화’에의 투신이며, 이 투신은 “새로운 열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으로써 열정을 기울이

는 투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교구란 교구장 주교가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서 사목하는 개별교회를 말합니다. 또한 교구란 그 안에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으로 내재하며 활동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입니다(교회법 제369조 참조). 즉 교구는 사목의 효율성을 위한 전체 교회조직이나 기능의 행정 구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이며, 교회는 교구로서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구를 사목하는 주교는 사도의 후계자요 진정한 의미의 사목자로서 교리의 스승이요, 거룩한 예배의 사제이며, 통치의 교역자입니다. 따라서 각 주교들은 교구 일치에 불 수 있는 원천이며 기초이기에(교회헌장 23항 참조), 주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교회헌장 20항 참조).

4. 교구 공동체의 우선적 과제는 새로운 복음화입니다. 이 새로운 복음화를 위하여 교구는 성령 안에 일치와 쇄신을 이루어나가면서 성직자의 쇄신과 능동적인 평신도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를 실현하고, 청년 전담 사제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과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육성하는 젊은 교회를 이루어나가야 하겠습니까. 또한 교구는 농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사랑의 문화와 건전 문화 건설을 위해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 복음화는 물론이고 북방 선교를 지향하는 '나아가는 교회상'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새로운 복음화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식을 먼저 전환시켜야 합니다. 의식 전환과 활성화의 첫걸음은 신앙인들이 가정과 소공동체,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먼저 서로 자주 만나며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일치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5. 교구 공동체는 성령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이시기 때문입니다(제삼천년기, 45항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어 나셨고,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대 위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대회년과 관련하여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새로운 천년기에 '성령 안에서만 이 회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제삼천년기, 44항). 성령께서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전해주시는 유일한 계시를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교회 안에 현존하게 하시며, 그 계시를 각 개인의 영혼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제삼천년기, 44항 참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다면, 대회년으로 그 새로운 봄이 열릴 것입니다"(제삼천년기, 18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는 성령의 활동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사도적 직무로서 보장되고 상호 사랑으로 지탱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제삼천년기, 47항 참조).

6. 교구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공동체(교회의 선교사명, 62항 참조)요 교구 공동체 전체가 선교사여야 합니다. “교회의 선교사명은 예수의 사명처럼 하느님의 일이고, 루가가 자주 지적하는 대로 성령의 일”(교회의 선교사명, 24항)이며, 전체 교회가 선교적이어야 하고, 모든 신자가 선교사여야(교회의 선교사명, 32항 참조)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을 선포하도록 재촉하십니다”(교회의 선교사명, 1항).

따라서 무엇보다도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이고 모든 교구와 본당과 기관과 단체의 일이라는 새로운 의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선교열은 언제나 교회 활력의 표지였으며, 반대로 선교열의 감퇴는 신앙 약화의 표지였습니다. 선교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견고케 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새로운 열정과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교회의 선교사명, 2항 참조). 따라서 교구의 모든 조직, 운동, 본당, 사도직 사업의 효율성과 척도는 바로 선교의 성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선교사가 됨으로써만 내부의 분열이나 분쟁을 극복하고 일치와 신앙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교회의 선교 사명, 49항 참조).

친애하는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교형 자매 여러분.

7. 교회는 복음화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지역교회인 교구 역시 복음화되고 복음화하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발전은 새로운 복음화, 즉 교회의 쇄신과 일치, 그리고 선교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구 공동체 모두는 1998년 교구 설정 40주년과 2천년 대희년을 앞둔 이 뜻깊은 시점에서 교구 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주시고, 또한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본연의 사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에 따라 순종한 여인, 고요하고 사려 깊은 여인, 하느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성모 성심께 모든 가정을 맡겨드리며,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지역사회와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주교구장 정진석 주교

‘교구 공동체 복음화’ 실천 지표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

주요 역점 사항

- 성직자 쇄신과 쇄신 프로그램
- 청년 사목과 청년 전담 사제
- 농촌 사목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1. 새로운 교회

- 성직자와 교회 조직의 쇠퇴 · 교회 운영과 재정의 투명
- 평신도들의 능동적 활동
- 최양업 신부님 시복시성운동 추진

2. 젊은 교회

- 청소년 자신의 사도직 수행
- 청소년을 위한 예산과 공간 확충
- 청소년의 자발적인 교회 활동과 사회 활동 참여

3. 함께하는 교회

- 생명과 사랑의 문화 건설
-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봉사하고 나눔의 실천
- 건전 문화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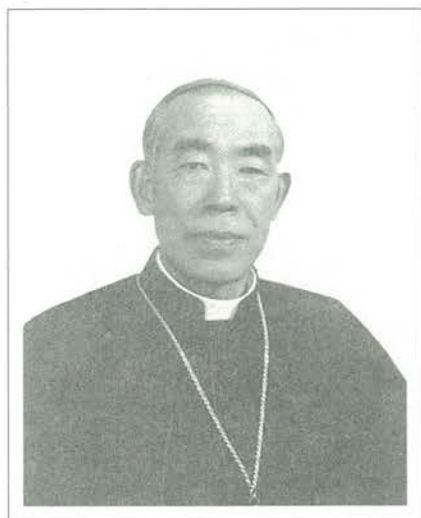
4. 나아가는 교회

- 선교하는 신자상과 현장 중심의 선교 모색
- 남북의 화해와 일치 운동 · 한우리 운동 전개
- 지역 선교와 북방 선교

사회정의 실천의 해

사회정의를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함으로써
'증거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박 정 일 주교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00년 대희년을 가까이 바라보며 1998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항상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구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대희년 준비 제2단계의 두번째 해로서 교황님께서 명명하신 '성령의 해'입니다. 새해에 우리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각자의 믿음과 삶 안에 대희년의 의의를 실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는 지금까지 2000년 대희년을 앞두고 "하느님 나라가 임하소서!"(마태 6.10: 루가 11.2)라는 목표 아래 교회의 내적 회개와 쇄신을 꾀하며 사회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가정 복음화와, 1996년의 소공동체를 통한 선교, 그리고 1997년의 사회 도덕성 회복 운동은 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구는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 회개와 쇄신의 지속적 노력

그리스도 강생 대희년은 교회의 회개와 쇄신의 노력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회개와 쇄신 없이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 (제삼천년기, 21항)의 주역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개인적, 공동체적 차원에서 진지한 회개와 쇄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각자의 내적 회개와 신심의 성숙이 요구됩니다. 신자생활이 현세 지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오늘날 이는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교구의 기구, 제도, 조직 등의 개편과 효율화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마르 2,22)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교구는 작년에 교구의 제도, 기구, 조직 등의 개편과 효율화의 일차적 작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그 개편에 따라 새 생활을 시작하는 첫해로서 전 교구민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2. 성령의 해

금년은 교황님의 뜻에 따라 전세계 교회가 한 마음으로 지내는 ‘성령의 해’(제삼천년기, 44-48항 참조)입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 계시면서 교회를 비추고 보호하시는 한편, 신자들을 성덕에 이끌고 성화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십니다. 금년에 우리는 특별히 성령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제삼천년기, 45항) 그 이끄심에 따라 살며 성령께 대한 신심을 돈독히 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해를 맞이하여 저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견진성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견진성사는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 신자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교 입문성사(가톨릭 교회 교리서, 1285항 참조)의 하나로서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신자들은 빠짐없이 받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본당신부님들의 각별한 사목적 배려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성령의 힘으로 육화되신 말씀을 잉태하셨고 그후에는 당신의 전생애가 성령의 내적 활동을 통해 인도되도록 허용하셨던”(제삼천년기, 48항) 교회의 어머니이며 신자들의 모범이신 성모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모님과 함께 은혜로운 이 한 해를 열심히 보내며 하느님의 은총이 더욱 넘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3. 사회정의 실천의 해

우리 교구는 대회년 준비 제2단계(97-99년)에 접어들면서 회년의 뜻을 살려 사회 복음화에 사목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금년은 작년의 ‘사회 도덕성 회복’에 이어 ‘사회정의 실천의 해’로 정하고 사회 복음화를 한층 더 심도있게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

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사회정의 실현은 도덕성 회복 못지않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교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투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정의와 사회정의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성의 바탕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생각할 수 없으며,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도덕적 사회는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도덕성 회복의 바탕 위에 사회정의 구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천의 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사람과 단체, 기관 등은 많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실정에 비추어, 우리는 사회정의를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함으로써 ‘증거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사회정의 실천의 방법은 개인과 가정, 단체, 기관 등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작년에 우리 교구가 도덕성 회복 운동을 생활 공동체인 소공동체를 통해서 하였듯이, 사회정의 실천 운동도 소공동체를 통하여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교회적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입니다.

사회정의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희년의 정신과 목표, 즉 해방과 자유, 정의와 평등, 생명의 충만 등과 온전히 부합되며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 개념 안에 그 전체가 수렴” (대희년 길잡이 1권, 16항 참조)되어 있습니다.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 사회에 “주님의 은총의 해”(루가 4,19)를 실현시키고 앞당기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신자 여러분!

사회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물론 오늘날 소수인 그리스도 신자들이 온 사회를 온전히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탈바꿈하게 하는 데는 역부족일지 모르나, 그러나 적은 양의 소금이 바닷물을 짙지 않게 하듯이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참으로 “짙은 소금과 빛나는 등불”(마태 5,13-16 참조)이 된다면,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데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정의 실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교구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산교구장 박정일 주교

실천을 위한 참고사항

1. 일반적 사항

- 가. 회년과 교구 사목지침에 대한 홍보와 교육
- 나. 지구, 지역, 본당의 장기 계획 수립

2. 회개와 쇄신의 지속적 노력

- 가. 신자들의 신심 양양을 위한 연수회, 피정, 순례 등 실시
- 나. 빈번한 고해성사를 위한 사목적 배려
- 다. 지구, 지역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계획과 실천
- 라. 지구 차원의 사도직 단체 결성과 활성화
(여성연합회, 교수회, 간호사회, 대학생회, 교리교사회 등)
- 마. 소공동체 운동의 지속적 전개

3. 성령의 해

- 가. 성령에 대한 교리교육
- 나. 빠짐없이 견진성사 받기, 견진성사 준비를 철저히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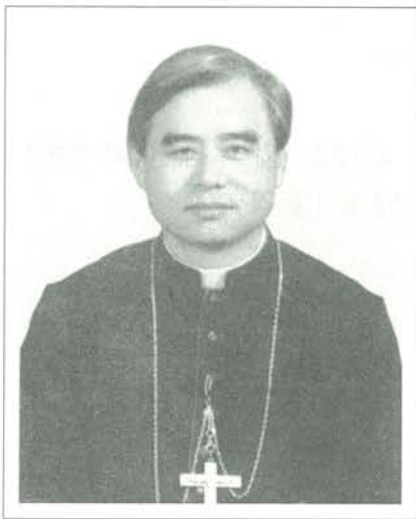
4. 사회정의 실천의 해

- 가. 신자들의 사회 복음화 사명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
(사회교리, 교황님의 사회회칙, 사목헌장 등)
- 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사랑의 실천
(복지시설 돕기와 봉사활동, 소년소녀 가장 돕기 등)
- 다. 인권과 권익 보호 운동 전개
(어린이, 노인, 외국인 노동자, 가난한 근로자와 농어민을 위해, 특히 여성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여성 강좌, 교육, 미혼모와 불우한 여성 돕기 등 실시)
- 라. 자연 보호 운동과 생명 보호 운동 전개
- 마. 농촌 살리기 운동 실시

오소서, 일치와 희망의 원천이신 성령님!

지역교회인 본당들은
그 지역민의 안식처, 희망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편안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박 석 희 주교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 삶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 2000년을 기리는 대회년이 2년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98년은 대회년 준비 두번째 해로서 '성령의 해'입니다. 지난해에는 '성자의 해'를 지냈고 내년에는 '성부의 해'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해'인 올해는 성령께서 이 세상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을 새롭게 깨닫는 해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한 하느님 이시며 모든 피조물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며, 만물을 다스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얼굴이십니다. 이 세상과 교회에 살아계시면서 구원활동을 계속하시는 성령의 활동은 참으로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활동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특정한 신심활동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성령의 활동을 왜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관한 성서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묵상하여 성령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치와 희망의 삶이 증진되도록 합시다.

일치의 원천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 전체에서 성령께서 이룩하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생명을 주시는 주님, 50항).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놀라운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저 멀리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낮추어 오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치의 하느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사람을 일치시키시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되게 하는 '일치의 은총'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민족이 분단되고,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갈등을 겪고, 뒤쳐지는 자는 살아 남지 못하는 비정한 경쟁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생활태도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비리, 무책임은 거짓된 삶, 이기적인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하느님과의 일치, 사람과의 일치를 복돋우는 진리이신 성령의 부재를 느끼게 합니다. 진정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일치의 원천이신 성령께서 갈라진 이 세상에 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화합과 이해, 헌신과 사랑이 넘쳐나는 일치된 세상을 이루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희망이 원천이신 성령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악을 쳐이키시고 하느님과의 일치, 사람들과의 일치를 이루는 하느님 나라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낮추신 예수님을 부활시켜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신 성부의 사랑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가게 격려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충동하십니다. 비록 분열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현실적으로 절망스럽고 답답할지라도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인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일깨워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며 참 자유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믿는 이들에게는 크나큰 희망입니다. 성령께서는 막막하고 어두운 우리 인생에 분명하고 밝은 빛을 주시는 희망이십니다.

우리 사회에는 희망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의 감원정책으로 직장을 잃은 이들, 취업난으로 방황하는 젊은이들, 농어촌의 외로운 노인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이 일그러진 이들,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또한 낯선 이국 땅에서 외롭게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 갖가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이야말로 "가난한 이들, 묶인 이들, 억눌린 이들"(루가 4.18)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사목현장, 1항)를 우리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으로 어두운 세상을 희망의 밝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희망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98년에는 이 세상에 빛을 주는 일에 앞장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치와 희망을 선포하는 교회

우리 교구 공동체는 지금까지 열린 교회로서 무료급식소와 복지관, 어린이집, 양로원, 나환우 정착마을, 농민들을 위한 활동,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 가난한 이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일치와 희망을 주려고 애써왔습니다. 또한 우리 교구 공동체는 '지역사회와 함께 사는 열린 교회 구현'을 교구 설립 25주년 자리매김을 하면서 재천명한 바 있고, 97년 사목방향에서도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반성해 보면 그동안 우리의 활동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우리 신자 공동체는 낮은 데로 오신 주님을 본받아 더 낮아져야 합니다.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성령의 활동을 보게 되고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지역교회인 본당들이 그 지역민의 안식처, 희망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편안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본당 공동체가 지역민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집, 이런 공동체가말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궁전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땅에 푸른 움' (안동교구 설립 25주년 주제)이 돋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항상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는 갈라진 것을 잇고, 가로막힌 것을 허물며, 맺힌 것을 푸시는 성령을 믿기에 실망하지 않는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해를 맞아 98년에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고 갈라진 겨레를 화해시키는 평화의 사도가 됩시다. 가난하고 정직하게 살아 참 자유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몸으로 증거합시다. 그리하여 일치와 희망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구세주 강생 2000년 대희년을 뜻깊은 대축제로 맞이합시다.

교우 여러분의 가정과 본당 공동체 그리고 각 지역사회에 성령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동교구장 박 석 희 주교

그리스도 안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각 본당은 교구예산 편성지침대로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예산을
좀더 과감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공 희 대주교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직자, 수도자,
교형자매 여러분.

지난해에 우리 교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구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목적인 배려를 하면서 새로운 복음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사제단의 일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사목, “함께하는 사목”을 실현하기 위한 평신도 지도자의 양성, 각종 지역단위 모임의 활성화, 자매결연 정신의 내실화, 도농간의 물질적·인적 교류를 통한 형제적 나눔과 도농공동체 운동의 활성화 등을 강조하였습니다(1997년 교구장 사목교서, 7-14항 참조).

또한, 교구 설정 60주년 및 목포지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정신운동의 일환으로 사제들의 해신과 계속교육에 관한 연수회, “마르코 복음 읽고 쓰기 60일” 운동, “교구 차원의 동시 선교운동 및 입교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으로 노안에는 피정의 집 건립을, 우리 교구의 모교회(母校會)인 목포 산정동성당에는 목포지역 선교 100주년 기념관 및 레지오 마리아 전 시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기념행사로 지난 10월 12일 목포에서 경축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본당 및 지역간의 활발한 교류와 나눔을 통해 교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구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1. 올해의 사목방향

1.1. 올해는 2000년 대회년 맞이 교구 5개년 사목계획의 제3차년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이라는 교구 5개년 사목계획의 대주제와 관련시켜, 올해 사목교서의 주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 결정하였습니다.

1.2. 이 주제는 대회년을 준비함에 있어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회년의 열매인 사회교리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선택되었습니다만(사회적 관심, 41-42, 47항 참조), 그것은 루가 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회년 선포를 바탕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묵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가 4, 18-19).

1.3. 올해의 주제는 또한 '시대의 징표 안에서' 새로운 의식으로 우리 교구를 쇠신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모두를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으로' 새롭게 복음화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우리 교구의 세번째 "새로운 복음화의 해"로 명명될 것입니다.

2. 인간세상의 일치의 표지요 도구인 교회 공동체

2.1. 하느님은 교회와 인간세상이 당신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느님과 깊은 일치와 전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주는 표지요 도구"(교회헌장 1항)로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지가 됨으로써 그 하느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2.2. 특히,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시대적 징표 안에서, 교회는 하느님의 같은 자녀로서 공통적으로 부여받은 인간 존엄성을 서로 존중하고 전인적 해방을 실제적으로 맞출 수 있는 인간세상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면서(제삼천년기, 12항 참조),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연관된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3. 지역사회와의 대화와 봉사인 사목활동

3.1. 하느님께서 세상을 통하여 역사(役事)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 안에 존재하

는 교회는 인간의 회로애락을 함께하면서(사목현장 1항 참조)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참여하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문을 열면서 세상의 관심사를 자신의 관심사로 삼아야 합니다(사목현장 3항 참조). 사실 교회의 사목활동은 자신이 처한 시대적·지역적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과의 대화와 봉사를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교회현장 8항: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 '지역 사목' 6항 참조). 좀더 좁게 말하면, 본당은 주교로부터 관할구역의 지역사회에 파견되어 그 지역에서 교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교회 공동체이며, 이러한 본당의 사목활동은 지역사회와의 대화와 봉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당 안에서 교회가 지역적으로 드러나 보이고, 교회적 친교가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표현됩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26항).

3.2. 본당은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생활을 통하여 스스로 복음화되는 전례 공동체임과 아울러 세상 복음화의 소명을 이룩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각 본당은, 신자들을 위한 기존의 사목적 배려뿐 아니라, 관할구역 내의 인구분포 현황을 비롯하여 종교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음적 성찰을 계속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과 친교를 나누면서 지역사회를 복음화할 수 있는 사목활동을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4. 지역사회에 열린 본당 공동체

4.1. 우리 교구내 각 본당이 지역사회의 제반 현실에 따른 요청과 함께하면서 하느님의 구원역사(救援役事)의 표지와 도구가 되고 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와 대화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재정과 시설 등을 통하여 온전하게 봉사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당 신자와 단체들이 정의와 사랑의 정신 안에서 복음말씀을 구체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 본당 예산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편성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 본당 시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개방되어 활용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변화는 무엇인가?

4.2. 최근에 교구 사목국에서 발간한 「1997년도 사목방문 보고사항(사목국용) 결과 및 분석」을 보면, 많은 본당들이 지역상황과 관련하여 본당 자체적으로 또는 지역 민간단체나 타종교 단체와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가 교회의 벽을 넘어 개방된 마음으로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목을 펼칠 때, 교회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참된 봉사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구원 성업은 본래 사람들을 구할 목

적을 가졌지만, 현세 질서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현세 질서에 복음정신을 침투시켜 현세 질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평신도 교령 5항). 이처럼 영적 질서와 현세 질서는 서로 구별되지만 하나님의 한 계획 안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본당과 단체들은, 자신들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더욱 새롭게 하면서, 지역사회와 더욱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4.3. 이를 위해서 각 본당은, 교구예산 편성지침대로,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예산을 좀더 과감하게(교구비를 제외한 본당 예산의 10% 기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고, 본당의 신자 및 시설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200주년 사목회의 의안 '지역사목' 2항 참조).

5. 사회사목활동

5.1. 교회는 오랜 역사를 통해, 기도와 성사집행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교육·의료·복지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사목활동을 펼쳐왔는데, 이것은 각계 각층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장애인, 부랑인, 노인, 고아, 근로청소년 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교회헌장 8항; 평신도 교령 8항; 평신도 그리스도인, 41항 참조). 또한, 기회가 닿는 대로 각종 단체의 후원회에 가입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하거나 직접 시간을 내어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처럼 육화하는 삶을 살려는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상당수의 본당들이 지역의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2.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적인 지원만으로는,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가난과 소외감 자체를 없애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그들과의 친교 안에서 서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은 소유(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우리가 누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본당은, 도시 본당뿐 아니라 작은 본당도,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재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푸에블라 문헌, 368항 참조).

5.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로부터 교회는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과 일치하기 위하여 교회의 ‘남는 것’ 뿐 아니라 ‘요긴한 것’을 가지고도 나누었습니다. … 소유의 노예가 된 세상 사람들에게 존재의 복음을 가르쳐주어야 할 교회가 더 소유하기 위하여 애를 쓴다면 이는 교회의 길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의 발전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소수의 '소유'가 다수의 '존재' 즉 인간됨을 손상시키는 사회현실에서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사회적 관심, 31항). 물론 이러한 가르침은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이 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상이요 희망으로서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께서 실현하실 진정한 나눔을 예고하는 '미래 예언' 일지도 모르겠습니다(제삼천년기, 13항 참조).

6. 기타 몇 가지 활동들

6.1. 흔히 사회사목의 의미는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교회가 세상과 대화하고 봉사하는 것은 단순한 시혜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개발적 차원이나 생활공동체의 차원 등 더욱 다양한 상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각 본당이 자선과 봉사활동을 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에 개방되고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목으로 그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6.2. 이것은 단순히 지역사회에 신앙인으로서 기여하는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정신으로 현세 질서를 완성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평신도 교령 5항). 즉, 그리스도교적 가치로 지역사회를 그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면서 지역의 구체적 환경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그 해결책을 복음적으로 함께 강구함으로써(현대의 복음선교, 18항 참조), 신앙과 삶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그 지역에 복음을 구체적으로 현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존재로서의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안에서 실시되는 사회사목활동은, 믿는 이들의 실천적인 신앙생활 양식(樣式)이며 동시에 복음화의 구체적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6.3. 따라서 각종 환경보전운동,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생명수호운동 등에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적극 권장할 만한 일이며, 기타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7. 청소년 사목 및 북한 형제들과의 나눔

7.1. 오늘날 많은 기성세대들은 청소년을 이 시대의 동반자로 여기기보다는 미래의 주역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이미 기성세대들과 함께 이 사회의 엄연한 주인공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를 통상적인 사목의 주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특별히 본당은 지역 청소년들의 전인교육과 건전한 그리스도교 문화 형성을 위한 폭넓은 문화공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7.2. 또한, 교구 회년 기념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 형제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겨레사랑운동은 한 겨레로서의 동포애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할 시대적 소명이요, 가난하고 소외된 형제 자매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신앙적 책무이기도 하며, 이러한 운동은 화해와 일치로 참다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교구내 전체 본당과 여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몇몇 본당에서 지역내의 타종교인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8. 사제들의 의식 전환

8.1. 각 본당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제들이 개방된 목자적 사랑으로 인간에게 봉사하는 사목을 실천적으로 선택하는 의식 전환이 요청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각 본당의 주임신부는 사회정의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복음정신을 함양하는 활동을 격려해야 하고, 특히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 상처입은 이들과 외로운 이들 그리고 특별한 어려움에 갇힌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교회법 제528조 1항; 제529조 1항), 이러한 배려의 대상에는 신자들과 진배없이 지역내에 살고 있는 비신자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교회법 제771조 1항). 복음화와 사목적 배려에 있어 신자와 비신자는 본질적인 구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현대의 복음선교, 18-19항 참조).

8.2. 물론 사회사목활동의 추진은 본당 주임사제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제단과의 연대성 안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역사제회의의 활성화를 통한 연대와 협력 속에서, 본당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제들은 교회적인 친교 안에서 주교와 일치를 이루면서 자신이 속한 사제단 안에서 그리고 사제단과 함께 공동사목을 통해 성숙해져야 하며(현대의 사제양성, 17항; 74항), 이를 위해 각 지역사제회의는 가능한 한 자주 지역별 현안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구내의 사목활동이 단일성을 유지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주교 교령 30항 참조).

9. 사회사도직을 위한 평신도 의식교육

9.1. 세속적 성격을 지닌 평신도들(교회헌장 31항)은 복음정신과 교회정신에 따라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쇠신해야 하는 특별한 직분을 받았습니다(평신도 교령 7항; 사목헌장 43항 참조). 평신도 사도직은 "교회와 세계 안에서, 영적 질서와 현세 질서 안에서" (평신도 교령 5항) 수행됩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스스로 복음화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과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사회사도직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해야 합니다(평신도 교령 13항; 민족들의 발전, 81항 참조).

9.2. 평신도들의 이러한 임무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 “평신도들은 자기 고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발견과 실천에 있어서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성격과 인간사회의 시민이라는 성격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59항). 따라서 각 본당과 단체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의 공동선을 촉진하면서 세상 복음화의 사명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에 맞추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천적인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하느님이신 구세주, 55항; 어머니요 스승, 223항.227항.228항; 평신도 교령 7-8항; 평신도 그리스도인, 41항 참조).

10. 반모임(소공동체)의 활용 및 전례 안에서의 표현

10.1. 현재 각 본당 사목협의회와 사회분과위원회·노인분과위원회·여성분과위원회 그리고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으며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사회사도직 활동들은,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일상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사회사도직 활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자체라는 인식과 함께 자신 역시 그 활동의 주체라는 자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자각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반모임(소공동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모임(소공동체)은 다양한 계층과 여러 단체에 소속된 신자들이 본당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함께 참여하여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지역사회의 제반 현실을 복음 말씀의 빛에 비추어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도, 신앙의 눈으로 함께 보면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나눔과 능동적인 봉사를 통해 드러나는 반모임(소공동체)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역할은, 반모임(소공동체) 자체를 위한 쇄신과 새로운 복음화에도 유익할 것입니다.

10.2. 전례는 교회 공동체의 사회사도직 사명과 분리되기보다는 서로 어우러져야 하므로, 세상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대화와 봉사는 전례 안에서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사목헌장 1항)가 각 본당의 전례(예컨대, 미사 중의 신자들의 기도)에도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고, 전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례로부터 세상 안에서의 자신의 활동에 대한 의미와 갈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성직자, 수도자, 교형자매 여러분.

2000년 대회년을 앞두고, 올해에 우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우리 자신과 세상의 새로운 복음화를 이룩하는 것을 우선적인 사목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목계획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교구내 각 조직 상호간의 사목적 연대를 통한 공동협력이 요구되고, 각 본당과 단체에서는 본 사목교서와 연계성을 지닌 더욱 명확하고 세부적인 실천방안들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교의 협력자로서 교구 전체의 사목활동에 이바지하도록 불림을 받고 주님의 양떼의 일부와 주교의 직무의 일부를 맡아 매일같이 신자들을 돌보는 사제들의 협조는 매우 요긴합니다”(1996년도 교구장 사목교서, 13항; 1997년도 교구장 사목교서, 16.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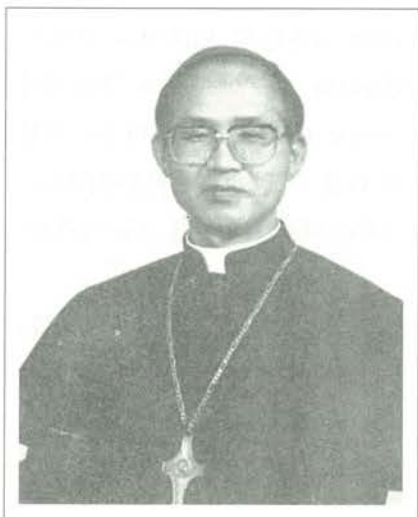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타의 통상적인 사목활동과 더불어, 복음정신과 교회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광주·전남지방의 빛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광주대교구장 윤 공 희 대주교

성령의 해를 맞이하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성령의 해는 인류가 희망을 새롭게 발견하는 데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이 병 호 주교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해에 이어, 2000년 대 회년을 2년 앞두고 '성령의 해'인 1998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1,5)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해에 우리가 교구 설정 60주년을 기념한 것도,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며 다가오는 대회년을 좀더 충실히 준비하기 위 함이었습니다.

1.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 21,5)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묵시 21,1). 묵시록 21장이 이런 말로 시작해서 펼쳐보이는 대로, 우리는 슬픔과 울부짖음, 고통과 눈물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은 신앙인들뿐 아니라,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갈망이 깊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만큼 답답하고 걱정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 이렇게 가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짙은 어두움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더욱 심하게 인간성을 상실하고 말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산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 이대로 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도박, 마약, 각종 폭력 등으로 무너져 가는 윤리질서, 너무나 일찍 어린 이를 심한 경쟁 분위기로 몰고 가는 교육풍토, 멸절하던 가정주부와 성실하던 직장인까지 하루 아침에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각종 유혹의 손길 등,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가 오염되어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신적 공기는 한층 더 빠른 속도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은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처럼 어둡고 숨막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전 것들, 묵은 세상이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 더 절박해집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 표현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창문을 열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단순한 꿈이나 말에만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실제로 만드셨고,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참으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면 그 새로운 세상은 언제나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2.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며(로마 4,8)

예수께서 반대자들의 손에 잡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사람들은 낡은 세상과 그 어두움의 세력이 여전히 판을 치고, 새로운 세상을 실현하려던 그분의 노력은 한낱 꿈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두 제자는 절망에 빠져서 “침통한 표정”(루가 24,17)을 하고, 한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던 예루살렘을 떠나 묵은 세상의 상징인 엠마오를 향해 힘없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이 그분을 만나고부터는 만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갔던 제자들은 다시 모여들었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다시 희망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그들의 희망은 더할 수 없이 부풀어올랐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루가 24,49).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에서는,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사도들에게 ‘힘’을 주시어 그들이 인간적 결점이나 한계

를 극복하고 용감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제의 삶에서 실천하고 그분을 증거하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새로워지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실제로 보내주셨을 때, 제자들과 세상은 과연 그 힘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가 마음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와 적대감이 생길 뿐 아니라,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싸우는 관계로 변질될 때,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일입니다. 나라 사이, 집단 사이, 이웃 사이,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그 관계가 무너지면, 무엇보다 먼저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여러 나라에서 각기 다른 말을 쓰고 있어서 전혀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고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담벼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서로 통하지 않고, 가진 바 재산도 서로 통하고 나누어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세상, 그전까지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 것입니다.

3. 새 하늘과 새 땅(묵시 21,1)

“그 많은 신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며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신도들은 모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놓고 저마다 쓸 만큼 나누어 받았기 때문이다”(사도 4.32-35). 이것이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세상에 이룩하신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나라, 천국의 한 면모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더 갖겠다고 다투고, 더 나아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 악마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2천만 원을 빼앗기 위해서 순진한 어린이를 죽인 사건의 범인은 그 일을 저지른 다음부터 자신이 지옥에서 살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마적 경향에 굴복하고 만 순간부터 그 사람은 지옥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루가 17.20-21).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치로 지옥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사시다가 남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 마음을 열면, 하느님 나라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느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상 주님

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타고난 이기심을 버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루가 복음 18장(18-27)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 점에 관해 뜻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는 그 젊은이가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살아왔음을 확인하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너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무척 마음이 괴로웠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서는 하실 수 있다.” 인간이 타고난 이기적 성향을 그대로 간직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 하느님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4.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서는 하실 수 있다(루가 18,27)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는 개인이나 기업체나 간에 사람들이 자기 손에 들어와 있는 재화를 순전히 개인적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나 가족 안에서만 그것을 들여쥐려는 경향입니다. 기업가 할아버지가 찻먹이 손자에게는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물려주면서 사회의 불우한 이들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한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에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들과 어두움은 더욱 짙어져서, 세상은 천국보다는 지옥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없이 거대한 재산을 누리게 된 그 손자도,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부모로서는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거기가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 이상의 도움은 자녀를 위하기보다는 망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내 손에 있는 재화는 본래 하느님께서 잠시 맡겨놓으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때에만, 그것은 백배 천배의 결실로 불어나 “하늘에 쌓아둔”(마태 6,20) 보물로 계속 남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철저히 따라 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서는 대화년을 앞두고 순교자들의 삶에서 확인되는 하느님의 놀라운 힘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모든 교회들이 제3천년기의 문턱에서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공경은, 다양한 형태의 그리스도인 소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랐던, 수많은 언어와 인종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현존하는 신앙과 희망과 사랑의 결실을 통해 구세주의 전능하신 현존을 드러내는 일 일 것입니다”(제삼천년기, 37항). 사람의 힘으로는 본래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순교자들에게서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호남의 사도 유향검은 양반 가문으로 당시 이 지방에서 유명한 부호였지만,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그 많은 재산과 대대로 이어오는 가문의 명성 등을 모두 버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선선히 바쳤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사람도 명예와 출세욕을 떨쳐버리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이 올라가려 하고 남 앞에 드러나고 싶어하는 인심을 가장 노골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선거철입니다. 이때가 되면 평소에 점잖던 이들도 자기 자신만을 추켜올리고 남은 오갖 중상모략을 다 동원해서 깎아내림으로써 인간의 가장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곤 합니다. 방금 전에 한 약속도 뒤집고, 표를 더 얻는 데 유리할 듯하면, 지켜온 대의명분이나 사회정의도 가볍게 버립니다. 그리고 유권자들 측에서도 후보자의 인격이나 자질을 보고 국가의 공동선을 위해 투표하기보다 지연, 학연, 혈연에 따라 생각없이 움직임으로써, 나라 일을 크게 그르치는 일에 공범자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신앙인들마저 그런 일에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 사회의 부패를 막는 데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5.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히브 12,1)

그런데 윤지충은 알아주는 양반 가문 출신으로 당시 출세의 관문이었던 과거시험을 향해 진사 시험에까지 합격했었습니다. 당시에 출세하고 높은 관직에 오른다는 것은 현세에서 권력의 정상에 있는 임금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부터, 그는 그런 욕망을 모두 버렸습니다. 배교를 강요하는 감사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살아서건 죽어서건 가장 높으신 아버지를 배반한다면 제가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온갖 고문에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으면서도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지엄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극형도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33세의 젊음을 주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권상연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천주교 순교사에서 진주와 같이 빛나는 존재”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이순이 루갈다와 유중철 요한 동정부부의 삶은 요즈음의 세대에 비추어 더욱 새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순이 루갈다는 14세 되던 해에 첫영성체를 통해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신 감격을 흘려버리지 않고, 일생 깨끗한 몸을 주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년 후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유중철 요한

과 형식상의 결혼식을 하고 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은 남녀가 그런 상황에서 처음의 뜻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앞두고 어머니께 드린 편지에서 무갈다 자신이 이를 확인해 주지 않았던들, 아무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전주로 내려온 후 평소에 마음에 두어온 일을 마침내 성취할 기회를 얻어서 9월과 10월에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하고 서원하였습니다. 그 이후 4년 동안은 사실상 남매처럼 살아왔는데, 그 동안 약 열 번 정도는 저희 힘만으로 서원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만큼 유혹이 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홀리신 수난의 거룩한 피를 힘입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어머님께서 금급하게 여기실까 하여 이렇게 몇 자 올리오니, 이 글을 보시거든 저를 본 듯이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동정부부는 하느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서로를 풍요하게 하도록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남녀 사이의 관계가 방향을 잃어가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 동정부부가 보여주는 영웅적 정신력은 오늘날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힘으로 살아있습니다. 이분들은 인간의 행복이 결코 육체적 쾌락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하느님의 힘을 빌리면 인간의 정신력이 그 육체의 본능적 욕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의 동정부부는 성윤리의 타락으로 대표되는 도덕적 무질서와 인간관계의 파괴로부터 우리 사회를 구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등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6.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마태 13,44)

물질은 본래 좋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좋다”, “매우 좋다”고 하셨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2데살 3,10)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과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누구나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남의 인정을 받고 거기에 상응한 자리에 올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더 큰 책임을 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음”(창세 3,18) 때문에 하느님께서 짝지워주신 사람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잘 기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본래 좋은 것으로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돕고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떠나 질서를 잃고 제자리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나쁜 것으로 되고 사람을 하느님에게서조차 멀어지게 합니다.

하느님만이 가장 좋고 제일 높으신 분이며,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만큼”(마태 13,44) 비할 수 없이 귀한 보물임을 실제의 삶으로 고백할 때에만, 본래의 취지는 살아나고 그 질서는 지켜집니다. 그것이 허물어지면 원래 좋았던 것들이 나쁜 것으로 변하고 맙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유혹

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빵도 좋고, 사람들의 인기나 칭찬도 좋으며, 이 세상의 권세와 영화도 그 자체로 볼 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마는 하느님보다 그것들을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악마의 유혹은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언제나 우리 앞에서 어른거립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단연히 “아니다” 하고 물리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나 죽느냐 사느냐 하는 투쟁의 현장에서 서있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성령의 칼”(에페 6.17)이라고 표현하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무찌를 때에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로 빵을 만들어보라는 악마의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는 성서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심으로써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나머지 유혹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때마다 성서의 말씀을 들어 그것을 쳐이기셨던 것입니다.

정신 속에서 그럴듯한 목소리로 은밀히 속삭이는 악마, 주변사회의 일반적 흐름,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경향 등을 상대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우리 신앙인의 처지를 두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루가 9.23-25)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인은 언제 어디서 살든지 누구나 순교자인 것입니다.

1997년 9월 6일에 선종하신 마더 데레사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대의 순교자였습니다. 수녀님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버린 이들, 아무리 거둬도 끝없이 널려진 병자와 걸인들을 데려다가 따뜻하게 돌보셨습니다. 어차피 건강을 회복할 가망성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 해도, 생전에 사람 대우를 전혀 받아보지 못한 이들이, 죽을 때만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람 대접을 받아보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수녀님의 뜻이었습니다.

7. 현대의 순교자(제삼천년기, 37항 참조)

데레사 수녀님은 생전에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 가장 무서운 적은 사랑의 빈곤입니다.” “가난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면 여러분과 내가 세상의 가난을 함께 나누면 됩니다.” 1981년에 한국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가난을 나누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한국에서 헐벗고 굶주리거나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힌두교를 국교로 하고 그리스도교 신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인도에서 데레사 수녀님의 장례를 국장으로 한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23개 나라에서 특별 조문사절을 보냈고, 특히 인도의 전통 종교인 힌두교를 비롯해서 불교, 이슬람교 등 주요 종교의 대표자들이 각기 고유의 예를 갖추어 종교가 전혀 다른 데레사 수녀님의 영전에 깊은 존경을 표시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며 어쩌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환자의 상처를 씻어주면서도 하느님을 만지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할 만큼 온몸으로 하느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신 데레사 수녀님은 종교나 교파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의 눈에나 참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환히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전세계를 뒤덮는 위력을 가지고 하루 종일 뉴스를 전하는 미국의 한 상업방송사는 데레사 수녀님의 서거 소식과 함께 그분의 삶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그분의 장례식이 있던 날은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대여섯 시간에 걸쳐 그 장면을 전 지구촌에 소개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4-16). 노벨 평화상을 탈 때에도 흰 형겍 손가방 하나를 달랑 들고 나타나셨던 1미터 50의 아주 작은 체구를 지닌 데레사 수녀님은 그 착한 행실로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찬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레사 수녀님 한 분만 현대적 의미의 순교자적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그 비슷하게 영웅적인 정신력으로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재산, 재능, 시간, 힘, 기회, 전문지식, 사회적 위치 등을 자기의 것으로만 움켜쥐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분들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모두가 현대적 의미의 순교자들입니다. 1997년 7월 21일 변산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린이들을 구하고 자신들은 탈진하여 숨겨간 정인성, 신준섭, 장만기 세 학생도 그런 예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기주의로 병들어 있다고들 흔히 말하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흔들어 깨우고, 짊어졌지만 참으로 보람있고 아름답게 그 삶을 마쳤습니다. “노인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영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며 인생은 산 햇수로 재는 것이 아니다.”(지혜 4.8)고 한 성서의 말씀을 새삼 생각나게 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8. 성령의 힘(사도 1.8)

우리가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당신에게 힘을 주셨던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힘을 주시어 당

신께서 하시던 일을 그들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요한 14.12) 하신 당신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상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은 요르단 강에서 세례 때에 “성령을 가득히 받으셨기”(루가 4.1) 때문이며,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도 “하느님께서 그분에게 기름처럼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루가 4.18 참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느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심으로써 그분을 그리스도(메시아)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왕으로서, 사제로서 그리고 예언자로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같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이 3대 직무를 이어받아 각자 나름대로 그것을 수행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교회헌장 34-36항).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같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언자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왕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제로서 기도와 회생을 통해 하느님께 자신과 세상을 봉헌할 사명이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3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 각자 서있는 위치와 상황에 따라 그 방법과 역할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의 나무 안에서 뿌리, 줄기, 잎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를 위하여 서로를 보완하면서 돕듯이, 사제, 수도자, 평신도 역시 세상 안에서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의 부족을 메우고 각자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고 세번째 천년기를 맞이할 대희년을 눈앞에 두고, 주님께서 이룩하고자 하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우리의 몫을 다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제삼천년기」에 따르면, 성령의 해는 인류가 희망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데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제삼천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로마 8.24)

“이러한 종말론적 전망 안에서, 신앙인들은 희망이라고 하는 대신덕(對神德)을 새롭게 발견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골로 1.5) 이 희망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희망에 바탕을 둔 근본 자세는, 한편으로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는 최종 목적지를 잊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해 주고,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의 계획에 맞도록 현실을 변화시키는 매일의 노력에 확고하고도 심원한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로마 8.22-24).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의 마음 안에서, 각자가 속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사회 환경 안에서, 그리고 세계 역사 자체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오도록 준비하면서, 그 하느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올 것을 기대하는 희망을 새로이 굳게 지님으로써, 제3천년기를 시작하는 대화년을 준비할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흔히 우리 눈에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금세기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희망의 표징들을 더 잘 식별하고 그 적극적인 가치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일반 사회적으로는, 그런 희망의 표징들이 인간 생명에 봉사하는 과학기술의 진보, 특히 의학 분야에서의 발전, 환경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관한 더욱 깊은 각성, 평화와 정의가 침해되는 곳에서 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 다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특히 세계의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에서 추구하는 화해와 연대를 위한 열망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희망의 징표들이 은사들을 받아들이고 평신도를 승격시킴으로써 성령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추세,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일, 다른 종교 및 문화들을 상대로 하는 대화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 등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화년의 직접 준비를 위한 두번째 해에 모든 교우들이 특별히 마음을 모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일치에 중요성입니다. 실상 성령께서 여러 가지 선물과 은사를 교회에 내리신 것도 바로 이 일치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특히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에 나타나는 교회론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널리 보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가 성령의 활동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사도적 직무로써 보장되고 상호간의 사랑으로써 지탱된다(1고린 13.1-8 참조)는 점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한 우리 신앙의 가르침을 잘 설명해 주면,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책임을 더욱 깊이 깨닫고 교회적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도 더욱 생생한 감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제삼천년기, 46-47항).

10. 공동이익을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의 다양한 선물(1고린 12,7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해를 맞이하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 교회 가족 모두가 각자 자기의 자리와 역할을 감안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힘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고 약점을 보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의 밑바탕이 되시는 성령의 활동이 우리 각자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마음을 그분께 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미사와 같은 전례기도, 기도서를 보거나 암기하고 있는 기도문을 외우는 염경기도 등이 모두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각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마태 6.6) 드리는 기도가 전제될 때에만 그 참뜻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권고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해를 맞이하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 하느님 백성 전체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각자 자기 방이나 성체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인간 마음의 가장 내밀한 곳까지를 뚫고 들어가 그것을 채워주시는”(생명을 주시는 주님, 45항)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요한 16.12-15 참조), 그분의 정신인 성령을 각자 자신의 진정한 정신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열성적인 성직자, 헌신적인 수도자, 좋은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든 태세가 되어 있고 실제로 놀라운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평신도들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순교자들의 땅에 세워져서 그분들의 정신이 피 속에 뜨겁게 흐르고 있는 전주교구 신앙 공동체는 이 모든 점에서 특별히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깨닫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생히 살아있게 하는 성령의 해를 맞이해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하나가 되어 각자 자신의 강점을 최대로 발휘하고 약점을 서로 보완함으로써, 성령께서 불어 넣어 주시는 힘을 더욱 활발하게 살린다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현할 때, 그렇게 해서 모아진 예비신자들을 상대로 교리교육을 할 때, 어린이 교리에서부터 기성 신자들을 상대로 한 신앙 재교육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교육 과정을 추진할 때, 사회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할 때, 미사 전례를 준비하고 실행할 때 등등, 교회 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갈 때, 하느님 백성의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모두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면, 교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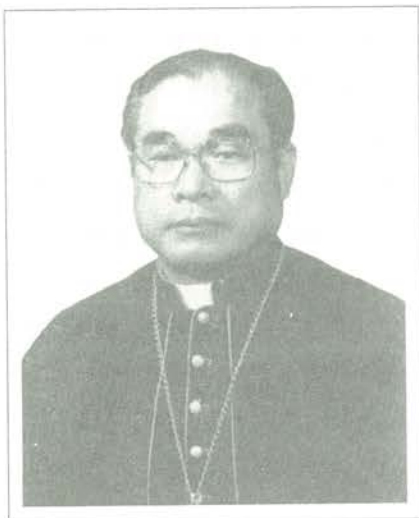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상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마태 28.20).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성령 안에서 희망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보편 교회의 대회년과
제주교구 회년인 선교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성령쇄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김 창 렬 주교



주님 안에 사랑하는 교구내 성직자, 남녀 수도자, 평신도 형제 자매 여러분!

1994년에 교황님은 교서 「제삼천년기」를 통하여 2000년을 대회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대회년 준비 3년 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해'인 첫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기고 보낸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공고히 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도좌의 대회년 중앙 사무국에서 마련한 준비 첫해의 기도문을 우리 모두가 꾸준히 외우면서 지냈는지 그것부터 의심스럽습니다. 이리하여 큰 아쉬움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는 대회년 준비 제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해이며 희망의 해'로 정해진 금년에 나는 '성령 안에서 희망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목지표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숙된 교회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 나의 제언입니다.

아울러 나는 2000년 대회년 준비 제2년이자 제주 선교 100주년 준비 최종 연도인 금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용서받으면 그 선물로 성령을 받게 되리라." (사도 2.38 참조)고 하신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따라,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삶을 반성하고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다지는 가운데, 희망이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열어드림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히 차지하시고 우리 안에 사

랑의 불이 항상 타오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1. 원천을 찾아서

오늘날의 신앙과 영성에는 '원천' 내지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꼽히는 것이 성령입니다. 교황 요한 23세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한번 더 읽기를 권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은 초대 그리스도교 안에서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자신의 은사적 차원을 자각한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자들이 그 지체로 되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으면 몸은 아무 쓸모가 없듯이 교회도 그것을 살리고 힘있게 해주는 생명의 근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근원이 바로 성삼위 중 제3위이신 성령이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영혼이 인체 안에 있듯이 성령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고 하였고, 아퀴노의 성 토마스도 “성령은 전 신비체의 최고의 완전성이며 원리이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자연체에 있어서 그러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성령에 관한 회칙 「신적 직무」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시고 성령이 그 영혼이라는 것은 긍정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러한 여러 “거룩한 교부들이 생명의 원리인 영혼이 인체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성령의 임무를 비교한”(교회헌장 7항) 사실에 입각하여 성령을 교회의 영혼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베풀어진 선물의 광휘 안에 신비체의 세포인 개개인은 예언자 에제키엘이 환상으로 본 해골과 같이(에제 37.1-10) 홀연히 한데 어우러져 살아 움직이는 몸이 되어서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영원한 성령에 의하여 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희미하게 추측하고 어렵듯이 인식하던 것이 모두 오순절의 불의 인도로 절대적 확실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된 것과 같이 이제 이 새로운 몸인 교회는 같은 성령으로 인류 안에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강림 전에 이미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신의 생명 활동을 시작한 것은 성령강림부터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에 설립되어,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명시되었습니다”(교회헌장 2항).

따라서 가장 엄밀한 의미의 교회는 바로 성령강림날 창설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성령이신 혼을 모시고 우리라고 하는 지체를 가지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주시는 희망도 하나입니다”(에페 4.4).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와 같이 성령은 당신의 결합적 사랑에 넘쳐 죽은 땅이 놀라운 생명과 아

름다움을 지니게 하신 방법으로, 또는 오순절의 강한 바람과 혀 모양의 불과 같이 새로운 체험과 이상한 언어를 영혼에 점화하시는 방법으로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변함없이 “새 사람”(2고린 5.17)의 창조주, “재생”(요한 3.5)의 수여자, 또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요한 4.14)로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교회가 언제나 성령께 문을 활짝 열어드리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성령강림으로써 형성된 그리스도 공동체는 지난 2000년 동안 겨자씨에서 큰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는 은총과 영광의 감격스러운 시기도 있었고, 배은과 치욕의 한스러운 시대도 있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불신앙의 시대, 그분과 교회가 은총 결핍증에 걸려 경화되고 속화되고 분열을 빚어낸 시대는 성령 망각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실질적인 존재 이유가 없는 맥빠진 실재로 여겨진 사실을 교회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세기를 내려오는 동안에 점차로 망각이 누적되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사도시대 직후에 일종의 퇴색 상태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웅색해진 상황에 처하여 오늘의 교회는 자신의 요람기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알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활력적 원리와 원동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지상생활을 하시는 동안 그분을 인도하셨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모든 제자들에게 파견되어 그들을 정화하시고, 갱신하시고, 활기를 주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비추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성령의 표를 받은 자(에페 1.13),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로마 8.2),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1고린 2.12-13; 3.1)로 간주하였습니다.

이 체험된 성령의 충만은 모든 인간적 지혜, 모든 인간적 권위나 규정을 훨씬 넘은 만큼 깊은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나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아무에게서도 판단받지 않습니다”(1고린 2.15). 구원의 기쁜 확신을 그들은 성령으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로마 8.16). 성령은 그들에게 의화를 보증해 주셨고(2고린 1.22), 그들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히 말할 수 있게 하셨으며(사도 2.29; 4.13; 4.31; 28.31), 기꺼이 희생을 받아들일 마음과 진정한 사도적 기백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사도 4.32 이하). 성령은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분량대로 은사들, 특히 이상한 언어, 관상 기도, 예언, 교리를 깨닫는 능력, 병을 고치는 힘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을 풍부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페이지마다에서 읽을 수 있는 “우리”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뜨거운 희열에 넘쳐 있었습니다(사도 14.10-17; 20.5-21; 27.12-29). 그리고 남녀 예언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곳곳에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영”(1요한 4.2; 1고린 12.3)과 “그리스도의 생각”(1고린 2.16; 2.2; 14.37)을 가지고 있음을 자

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성령의 계시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진위를 시험해야 한다는 것(1데살 5.21)을 알았고, 부조리한 것을 피하면서(1고린 14.40) 성령의 불을 끄는 일이 없도록(1데살 5.19)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것도 굳이 막지는 마십시오”(1고린 14.39). “나는 여러분이 모두 이상한 언어로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1고린 14.5).

이 은사들 안에서 교회는 “성령과 그 능력”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했던 것입니다(1고린 2.4). 이와 같이 초대 그리스도교는 성령의 열렬한 직접 체험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령은 요엘의 예언과 같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요엘 3.1-2 참조).

젊은 교회의 초기적 열광과 감격 안에는 엄밀히 그 젊은 시대에 속한 것,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 또는 환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교회의 중심적 본질, 즉 성령과 그분의 은사 및 그분으로 인해 시작된 은총의 생명에 대한 기쁜 신앙은 그리스도교 안에 지속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언제나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강림의 체험이요 성령의 지속적인 분출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2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그것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언과 치유의 능력과 기타 기적들은 드물고도 예외적인 개인적 특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은사적 활동이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일은 없습니다. 모든 시대는 각각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예언자들, 그리고 영적 은사를 받은 설교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들의 작용이 모든 지방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던 상황으로부터 그 작용이 경악을 자아내거나 심지어는 일종의 스캔들을 불러일으킬 만큼 매우 드문 현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결정적인 변천이 그 동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변천은 그 당시의 그리스도교 저술가들로부터 아무런 설명이나 해석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변이의 역사를 추적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2세기가 다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 변이는 완전히 끝났음에 틀림없습니다.

은사들의 이 상대적인 소멸이야말로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중대한 변천 중의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그 변천에 대해서는 초기에 있어서는 교회의 확장을 위해 은사들이 필요하였으나 이미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어떤 비판가들은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 안에 교계제도에 의한 직무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본래의 은사적 주도력이 억압되어 추방당하고 말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더욱 단순하게 원시 교회의 열기가 차츰 식어져서 성령으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사도시대와 초대교회에 왕성하고 뜨겁던 성령의 열기가 교회사를 통해 계속 유지되지 않은 것은 미상불 원통한 일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2. 이 시대의 징표 : 성령에 의한 재창조

오늘날의 세상을 훑어보건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고 그들의 신음소리는 드높습니다. 과연 현대는 불안과 절망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자연계, 윤리계, 정신계, 영신계 등 모든 분야와 영역에 걸쳐 드러나고 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많은 세기말적 죄악상에 대하여는 여기에 새삼 들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이 시대는 역사상 절망지수가 가장 높은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세우신 교회는 각 시대와 그 시대인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선교사업과 사목 활동을 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대인의 기쁨, 희망, 슬픔, 번뇌, 고통의 신음소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인간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인과 무관한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인 신도들로 구성된 오늘의 교회는 절망 속에서 해매는 현대 및 현대인들과 깊이 결합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교회헌장 1항).

이미 서구 문명의 몰락을 예언한 사람도 있었거니와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와 교회의 긴박한 사정을 예고 또는 경고하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들 중에는 허무맹랑한 순수 인간의 것도 있고 성모님이나 심지어는 주님께서 전하시는 소리로 주장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거없는 공연한 세기말적 위기의식에서 빚어지는 일로 간주하고 그것들을 일축해 버릴 수도 있겠으나 혹 그중에는 세상과 교회에 주어지는 예언적인 목소리가 섞여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감을 한다거나 기미(機微)를 알아차리는 본능은 짐승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 본능을 인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는 시대의 징표를 읽을 수 있는 고차원의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로 하여금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사태나 사정에 대비하고 대처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때, 은총의 때를 잘 읽어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제때에 옹계 읽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구름, 바람, 기압 등을 보고 날씨를 짐치거나(루가 12.54-56 참조) 세상물정 돌아가는 모양을 보고 어떤 일을 예상하기는 쉬우나, 구원사에 있어서의 시대 징표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주인을 기다리라.”(마태 24.42; 25.13 참조)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음에 대비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시대의 징표와 주님의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또는 교회라고 해서 언제나 시대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사용해 온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시대의 징표를 읽는 일에 실패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것과 같이 교회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도 시대의 징표를 제때에 옹계 읽지 못함으로써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때를 제대로 읽으면

마치 주인을 기다리다가 그를 맞이한 종처럼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는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임을 깨닫고 성령께 온전히 의탁해야 함을 시대의 징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특히 불안과 절망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항상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찾아가시어 새로움과 희망을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재창조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승천 후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세찬 바람소리와 함께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내렸습니다. 그러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된 그들은 전연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여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사도 2.1-13 참조).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힌 마음을 풀어주시며 새로운 희망으로 용감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불과 같은 열성으로 절망 상태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영생의 희망을 전하게 하시어 그들처럼 사랑과 기쁨과 평화 속에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안과 절망의 시대인 오늘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자 하심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3. 제2의 성령강림

형제 자매 여러분, 불안과 절망의 시대인 20세기 후반에 하느님께서 제2의 성령강림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선 요한 23세 교황님께 특별한 은사를 내리시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서를 받은 교황님은 공의회를 소집하기에 앞서 하느님 아버지를 향하여 “마치 또 하나의 성령강림과도 같이 당신과 놀라운 일들을 오늘날 새롭게 하소서.” 하고 간청하셨습니다. 그 공의회는 교회쇄신을 위해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회현장에는 “성령은 복음의 힘으로 교회를 젊어지게 하시어 사랑이신 그리스도와와의 일치를 완성시킨다.”(4항)는 말이 있고 또 다음과 같은 가르침도 들어있습니다. “성령은 성사와 교도직을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덕행으로 꾸며주실 뿐 아니라 또한 당신의 은혜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주시며’ (1고린 12.11), 모든 계층의 신자들에게 특은도 나누어줌으로써 교회의 쇄신과 더욱 폭넓은 건설을 위하여 유익한 여러 가지 활동과 직무를 맡기기에 적합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신다”(12항).

헨리 뉴먼 추기경(1801-1890년)은 교리의 발전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평신도의 신앙이 맡았던 능동적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리에 관한 문제들에 있어서 평신도들과 상의해야 한다는 그의 유명한 논설에서 이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교도에 있어서 성직계급을 비추어주실 뿐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신도들을 또한 비추어주신다는 사실에 입각한 기본 입

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학자들이 준 자극과 다른 요인들에 힘입어 오늘날 영성의 동향들은 성령의 활동을 강조하는 일에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성사들은 단지 표시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성한 의식으로서만 아니라 하느님과의, 특히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는 진리의 객관적인 표현(설명)이라기보다도 인격적인 신적 통교로 이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감과 전승에 관한 신학설들이 또한 성령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터입니다. 현대의 성서 운동은, 적어도 그것이 신심과 인연이 있는 경우에는, 예언자들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서 성령이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미사 전례는 성화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의 역할을 매일 우리에게 일깨워줌으로써 그분의 능력과 활동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밖에 없던 '미사 전문(典文)'(오늘의 감사기도 제1양식)의 '마침 영광송'에서 성령의 이름이 한 번만 나왔었는데 지금의 성찬 전례에는 여러 차례 그분이 언급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성령 청원 : 축성 기원'에서 우리가 마련하여 바치는 빵과 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성령께 청원하는 기도를 바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례 개혁이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전례 운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는 어디에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특별한 양식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각성은 평신도들에 의하여 지도되는 비전례적, 비공식적인 기도 단체들의 급격한 증가를 자극하였습니다.

1967년 6월 중순 미국 피츠버그에서 일어난 후 '듀케인 주말'이라고 불리어지게 된 사건은 이제 하나의 전설로 되어 있습니다. 듀케인 대학의 30명 가량의 교수와 학생들이 가졌던 그 주말 피정은 분명히 은사 쇄신사, 또는 교회 쇄신사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사람에게는 신속히 은혜로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의 특수한 예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이 성령쇄신 운동을 가리켜 "교회와 세계를 위한 하나의 섭리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교황님은 또한 "교회의 일차적인 급선무는 언제나 성령강림을 생활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마치 성령에 잡힌 분으로 느껴질 만큼 저술이나 강연이나 담화 등에서 거의 늘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회칙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은 교황께서 성령과 그 은사를 새롭게 인식한 나머지 그 영혼으로부터 자연히 우러나오게 된 하나의 산물이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주간 일반알현시에 행하는 교리 강화에서는 성령에 대하여 1년 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분량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론보다도 오히려 더 방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서는 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옳게 공경하지 못하고 망각 속에 모셔두었던 성

렇게 대한 속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대 신학의 동향, 현대 영성의 갈망, 그리고 심지어는 가짜 영성의 행패까지도 '다른 협조자', 즉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불기둥보다도 더욱 하느님다운 방식으로 교회를 이끄시는 그 다른 협조자에게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에넨스 추기경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언명한 바와 같이,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2세기의 어느 선견자가 예상한 바와는 달리 아드님의 시대를 대신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마치 성자의 시대가 성부의 시대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을 완성한 것과 같이, 아드님의 시대를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4. 오소서, 성령이여

현대의 교회쇄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며 또 그것이 베풀어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하느님의 뜻이 반영된 시대의 징표를 보지 못하여 공의회와 정신과 이념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방법을 쓰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면에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과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은 하느님에 대하여 열성은 있었지만 불행히도 그것은 하느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오로께서는 이 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만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하면서 하느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시다”(로마 10,2-3). 바오로 사도는 유대인들의 실패 원인이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찾지 않고 공로를 쌓음으로써 그것을 얻으려 했음에 있다고 하시면서 결국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언명하셨습니다(로마 9,30-32 참조). 바오로는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계시에 입각하여 하느님 성의(聖意)의 절대성과 인간 의지 및 노력의 한계성을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도외시하거나 망각한 신앙 풍토에서는 신앙생활이 가공적(架空的)인 것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모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상실하고 죄를 짓고도 하느님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례 개혁, 사목 개선, 조직 개편들을 아무리 시도해 보아도 근본적인 교회 쇠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는 세계 평화, 정의 구현, 인권 회복 내지 신장, 인명 존중, 결혼의 신성성과 가정의 권리 옹호, 빈부 격차의 해결, 교회 일치 등을 위해 실로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별 성과는 거두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목표들은 차츰 멀어져가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영혼은 자기 안에 내적인 인간이 형성된 정도만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내적인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열정과 선의를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을 두고 한 샤를 드 푸코 신부님의 이 말씀은 진실이며 우리 가톨릭 전통에 의한 상식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례나 견진이나 신품성사로써 성령을 받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나 사제 또는 수도자로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사제나 수도자로서 제대로 존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활짝 열리고, 한편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차지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묵시록에는 라오디게이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알다시피 그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해서 하느님께서 그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 완전히 이끌리는 생활이 되면 뜨거운 것이 되고 그분을 완전히 외면하면 찬 것이 됩니다. 그런데 미지근하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분께 완전히 열려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저 멀리 계셔서 주로 창조주로만 여겨지는 분, 제아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큰소리로 부르고 또 불러도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는 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로마 8:15: 갈라 4:6 참조). 한편 예수님을 제아무리 입버릇처럼 늘 주님이라고 부른다 해도 그분은 주님으로 체험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1고린 12:3 참조). 따라서 그는 예수님과 비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시쳇말로 이른바 직업적인 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나 사제나 수도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13세에 시작한 사제수업 13년 동안의 신학교 생활에서 12세기에 만들어진 다음의 기도를 매일 바치게 한 교칙의 존재 이유를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아버지, 당신의 성령을 보내소서, 그러면 만물은 창조되고 온 누리는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함시다. 성령의 비추심으로 믿는 이들의 마음을 가르치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으로 바른 것을 맛들이고 그분의 위안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기도에 성모송이 뒤따랐음.>

또한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10여 번씩이나 바치게 한 이유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은총을 가득히 받으시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성모 마리아와는 달리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지 못하고 우리의 열성 또한 변덕스러운 것이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이신 하느님께 기도드

리는 신앙인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드리는 것이지만 성령께 의식적으로 기도드리는 신앙인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로서 우선 하나님의 위격들 중에 성령이 가장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자는 그중에서 파악하기가 가장 쉬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부는 삼위일체가 계시되기 이전부터 유일신으로 언제나 인식되어 오신 분이데다가 풍부한 의미를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아버지'의 칭호까지 차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상상으로써 파악하기 힘든 어두움 속에 계시는 분이요 비둘기라든가 불혀라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모호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수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고 그것을 이끌어오시는 성령께 대한 우리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의 소치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형이신 복되신 마리아도 성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6세 교황님은 마리아를 "하느님의 성령의 영원한 거처"(마리아 신심, 26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 마리아 신학의 선구자이신 성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는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와 성령의 일치하는 표현 불가능할 만큼 완전한 것이어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짝인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에 의해서만 행동하신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 이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마리아를 성령의 육화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항상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육화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말로 그분과 일심동체라고 할 수 있는 성모 마리아를 가까이 모시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체험으로 분명히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도와주신 분은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나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 안내하시어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교회 안의 크고 작은 공동체도 성모신심을 통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특별히 성령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는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활동의 하나로 올바른 성모신심을 기르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성모신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을 모시고 아드님을 위해 일생을 사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신 성모님을 닮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성령과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해를 지내는 동안 성령쇄신 운동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운동이 이미 세례성사으로써 재생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전형적이며 정상적인 본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악의 세력을 저지하고 밝은 희망의

빛을 세상에 밝히게 해주는 이 시대의 섭리적 도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교회는 성령께 완전히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가락을 마음껏 연주하실 수 없었습니다.

성령쇄신 운동이 아니었다면 초대교회를 새롭게 보고, 초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의 산 본보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편 교회의 대회년과 제주 지역교회 회년인 선교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움과 희망으로 이끌어줄 성령쇄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를 통하여 성령의 활동을 깨달을 수 있기에 몇몇 본당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성서 읽기와 쓰기 운동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항상 젊음을 유지함으로써 교회의 희망인 젊은이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띠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며 기도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세주 강생 2000년을 준비하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상 제사의 계속인 미사 때에 그리스도께서 현존”(미사경본 총지침, 7항)하시듯 성령강림도 오순절에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안에서 언제나 새로이 되풀이되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성령강림을 살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없는 인간은 죽은 인간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체 그리스도인이든 가정이든 그 어떤 공동체이든 구별없이 그 희망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실적 난제들이 우리의 고장과 교회를 휘감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심을 굳게 믿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쁨과 희망에 찬 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제주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구실을 이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특별히 제주의 큰 슬픔인 4·3사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일치의 하느님이신 성령의 은혜와 그분의 짝이시며 우리 교구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의 덕에 힘입어 화해와 치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한 1901년의 신축교안에 얽힌 일들도 순조롭게 풀려 우리 고장이 온기에 가득 찬 삶의 터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건설을 위해 힘쓰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삼위의 축복과 지극히 복되신 성모님의 따뜻한 보호가 항상 깃들기를 비는 바입니다.

제주교구장 김 창 렬 주교

실천사항

1. 기도의 생활화

- 1) 아침·저녁 기도 바치기
- 2) 삼중기도 바치기
- 3) 식사 전·후 기도 바치기

2. 성령 쇄신 운동을 통한 신심 함양

- 1) 성령 묵상회 참여
- 2) 견진 대상자는 전원 견진성사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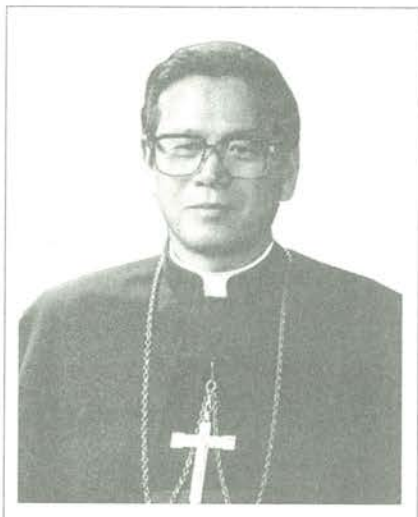
3. 성령 은사의 쇄신과 본당 활성화 도모

- 1) 교리와 성서 공부, 매일 성서 읽기와 쓰기를 통한 예언의 은사 쇄신
- 2) 선교의 은사 쇄신을 통한 예비신자 모집과 냉담자 권유
- 3) 신심(활동)단체의 가입과 봉사활동
- 4) 구역(반)모임을 통한 친교와 일치

일치와 복음화의 역군이 되는 해

삶의 표양을 보입시다.
공부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선교사가 됩시다.
무엇보다도 병영 안에서 선교사가 됩시다.

정 명 조 주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땅 끝에 이르기
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군종교구민 여러분.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시고 특별히 성
령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
를 기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탄생 2000주년을 ‘대회년’
으로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쁨에 동
참하고 해방의 기쁨을 나누도록 초대하고 있습
니다. “회년이라는 말은 기쁨일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은 단지 내적 기쁨일 뿐만 아니라 외적
으로도 드러나는 환희입니다”(제삼천년기, 16
항). 또한 새로운 천년기에는 모든 사람이 “어
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같은 분이신 그리스
도”(히브 13,8)께서 인류 전체의 구원의 열쇠이
시며 삶의 중심과 목적임을 발견토록 하고,
신앙과 희망과 사랑의 결실을 통해 구세주의
전능하신 현존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
니다.

우리 교구민은 그 준비의 첫해인 1997년
‘예수 그리스도의 해’를 지내면서 ‘회개와
쇄신의 해’라는 주제하에 신앙인으로서의 정
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곧 “아담
아,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난날 우리 자신
의 신앙과 삶을 반성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의 신원을 재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그분만이 당신을 송두리째 하느님 아버지께 속죄의 제물로 봉헌되신 참된 구세주이심을 굳게 믿고 재다짐하며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대회년 준비단계의 둘째 해인 1998년은 '성령의 해'를 지냅니다. '성령의 해'를 맞아 교구 사목방향을 '일치와 선교'로 정하고 교구민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주력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제삼천년기, 45항).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공동선의를 추구하며 만인을 구원으로 불러모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교회는 성령 안에서만 이 희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생명을 주시는 주님, 51항). 성령은 '교회의 혼'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해'에 우리 군종교구민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활동에 의지하면서 신앙 안에 일치를 이루고 '복음화의 역군'이 되는 삶을 살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루가 4,43)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마태 28,19-20).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모든 이들이 구원의 은총에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치의 신비를 봉헌하고, 복음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노력합니다.

첫째, 삶의 표양을 보입시다.

"선교의 첫째가는 아주 중요한 형태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증거입니다"(교회의 선교사명, 42항). 즉 나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첫째가는 증거의 모양은 새로운 생활모습을 나타내는 그리스도교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생활 자체입니다"(상동). 삶의 표양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정의 일치, 즉 화목입니다. 교회는 '가정은 작은 교회'(교회 현장 11항; 평신도 교령 11항)라는 아름다운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가정은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들과 또 부부간에 진정한 대화와 사랑을 나누어야 하며 무엇보다 신앙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정기도(적어도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를 꼭 실천하여 가족이 하나되는 기쁨을 맛보도록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성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양이야말로 아직도 혼인 조당이나 냉담 중에 있는 이웃을 교회 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웃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표양을 따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며, 삶을 나누는 일입니다.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었을 때마다 나에게 해준 것"(마태 25,40)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

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문화가 팽배해 가는 우리 시대 안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 선포가 될 것이며,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실천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살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둘째, 공부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의 복음 선포는 삶을 통해 훌륭한 증거의 모습으로 드러날지라도 설명되고 납득되지 않으면 때로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기”(로마 10.14)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혹은 옮겨 쓰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성서를 모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먼저 성서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신앙의 무장을 위한 교리공부에도 열정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995-1996년, ‘말씀 경청의 해’를 지내면서 성서를 열심히 봉독하고 묵상하며 나누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의 기회에 적극 참여하여 공부하고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제들은 교황 바오로 6세께서 「현대의 복음선교」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론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며 모든 성의를 다 기울여야 합니다. 미사 성제 가운데 거행되는 강론은 특별한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어 복음 선교를 위한 특수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론하는 사람의 깊은 신앙이 표명되고 사랑이 담겨져야 합니다”(현대의 복음선교, 43항).

셋째, 선교사가 됩시다.

흔히 복음 선포는 사제나 수도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로서 이미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마르 16.15)고 명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파견되신 최초이며 최대의 선교사이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1고린 9.16)고 하였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새로운 천년기를 앞두고 온 교회가 선교활동의 새로운 충동을 받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1997년 전교주일 교황 담화문)고 하시며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종교구민은 특수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복음 선포에 있어서도 특수한 모습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군인 신자들은 종일토록 비신자들 사이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가정에서까지 비신자인 가족과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먼저 나의 가족 안에서 선교사가 됩시다. “가정은 교회처럼 복음이 전달되는 곳이에요. 거기서 복음이 빛나는 곳이기도 합니다”(현대의 복음선교, 71항).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자녀들로부터 복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가정의 일치와 복음화야말로 모든 선교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냉담 중이거나 아직도 세례 받지 못한 나의 가족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선교의 황금어장인 병영 안에서 선교사가 됩시다. 단 한 사람의 동료나 상사나 부하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줍시다! 지난 1995년말 정부 공식기관인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비종교인은 전체 인구의 49%에 이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군 안에도 비종교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인생 문제와 자신의 미래 상에 갈등을 겪고 있는 20대 장병들에게는 복음 선포는 한 젊은이로 하여금 참다운 삶의 지표를 갖게 하고, 군인으로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며, 나아가 건전한 시민으로 자리하도록 기여함은 물론 예수님의 사상대로 인생관을 정립해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신문」의 ‘청소년 신앙생활 실태 및 종교의식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 중 전교에 의해 입교한 신자는 불과 8%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교구민 여러분,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줍시다. 이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조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군종교구민 여러분!

“성령은 기도와 함께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는 선물입니다. 기도 안에서, 그분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시는’ 선물로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생명을 주시는 주님, 65항). 그분은 한없는 자비로서 여러분 모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모두 대화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합시다.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음을 감사드릴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신 성령을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본당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일치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새로운 성령강림이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교구내 모든 본당 공동체와 병영 안에 충만히 내려지길 기원하면서 축복을 보냅니다.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 마음에 사랑의 불을 놓으시어 하나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군종교구민 모두가 일치와 복음화의 역군이 되게 하소서! 아멘.”

군종교구장 정 명 조 주교



대희년과 평신도의 역할

이 창 훈

「평화신문」 기자 · 한국평협 홍보분과 위원

1. 들어가는 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994년 교서 「제3천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후 2천년이 되는 서기 2000년을 '대희년'으로 선포하면서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할 것을 전 세계 교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도 95년 가을 정기총회에서 주교회의 산하에 '2천년 대희년 주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나름대로 2천년 대희년 준비를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일선 본당의 신자들에게는 아직도 대희년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고 생소한 용어로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신자들은 대희년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또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희년 또는 대희년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희년이 우리에게 참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리스도 신앙인, 구체적으로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신원(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2천년 대희년을 뜻있게 맞이하기 위한 우리 평신도의 삶의 자세와 역할

은 무엇인지를 반성해 보고자 한다.

2. 희년이란 무엇인가

2.1. 희년의 유래와 의미

희년(禧年)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기쁜 해, 복된 해라는 뜻을 지닌다. 물론 이 희년이란 말은 우리 한국의 문화권에서는 아주 생소한 용어이다.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민족의 역사와 직접 관련된, 성서의 용어이기 때문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레째 되는 날에는 쉬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너희 소와 나귀도 쉴 수가 있고, 계집종의 자식과 몸붙여 사는 사람도 숨을 돌릴 것이 아니냐”(출애 23,12). 이른바 안식일 규정이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6년간 열심히 땅을 가꾸어 일하지만 7년째 되는 해는 쉬도록 했다. 즉 안식년의 규정이다(레위 25,1-7). “칠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놀리고 소출을 그대로 두어 너희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나 먹게 하여라. 너희 포도원도 올리브 밭도 그렇게 하여라”(출애 23,11). 그리고 특히 이 안식년에는 남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갚으려고

희년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희년을 '주님의 은총의 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우리는 이 희년의 은총을 합당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 빛을 삭쳐 주어야 한다(신명 15.1-2).

희년은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낸 후 맞는 50년째의 해를 말한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안식년에 지켜야 할 일을 그대로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안식년 규정의 의미가 더욱 크게 확장된다. "50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레위 23.10).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이 희년의 규정(레위 25.8-55)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정착한다. 이들은 먼저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모두가 자유인으로서 자기 땅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사람들도 자유인과 종으로 갈라지는 신분의 계급이 형성됐다. 땅도 사람도 하느님만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잊혀져 갔던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설정된 희년 제도는 땅도 사람도 모두가 원 주인이 하느님

이시며, 따라서 하느님께 되돌려드림으로써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났던 그 자유와 해방을 다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희년은 거룩한 해이고, 해방을 선포하는 해이다. 희년이 거룩한 해인 것은 하느님께 바쳐진 해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느님이신 것처럼, 안식년이 하느님께 바쳐진 해인 것처럼, 희년은 하느님께 바쳐진 해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느님께 바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땅도, 소나 나귀도, 종이나 몸붙여 사는 사람들도 쉴 수 있도록, 숨을 돌리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곧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선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포함해 만물을 원 주인이신 하느님께로 되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희년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구약에서 관행으로 내려오던 이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고 고백한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빼앗긴 자들에게 자유를 선사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주님의 은총의 해'를 알리

신다. 그분께서는 이 해를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선포하신다”(제삼천년기, 11항).

2.2. 회년의 정신을 찾아서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회년의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이상(理想)과 희망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회년이 뜻하는 정신은 분명했다. 회년은 “재산을 잃고 인격적 자유마저 상실한 가정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서 평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했다”(같은 책, 13항).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나아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회년을 맞아 해방을 선포한다는 것은 만물을 다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림으로써 원상태를 회복케 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原狀回復)은 삼중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이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인류에게 땅을 주셨다면 그것은 인간 각자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세계의 풍요로움은 전인류의 공동자산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 이 자산들을 개인의 소유물로 소유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본연의 의미에서 유일한 소유자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일하도록 위임받은 관리인,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년은 이 사회정의의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같은 책, 13항).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으로

새롭게 실현된 회년은 단지 이렇게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성격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이를 넘어서서 인간의 깊은 내면의 상처, 곧 죄로 인해 단절된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영적이고 내적인 차원을 지닌다. “교회에 있어서 회년은… 죄와 그에 따르는 벌을 사해주는 용서의 해, 상반된 집단 사이의 화해의 해, 다양한 회개와 성사적, 성사 외적 참회의 해”(같은 책, 14항)이다.

회년은 따라서 외적이고 사회적인 측면,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원상회복일 뿐 아니라 또한 내적인 측면에서의 관계회복이기도 하다. 현세의 사물들을 비추어주고 관리함으로써 창조주에게 찬미가 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재물에 대한 그릇된 집착과 소유욕에 젖어들었던 잘못에서 벗어나 만물을 그 본래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되돌리는 것, 그리고 죄로 인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웃으로부터 멀어진 잘못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회년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회년을 ‘주님의 은총의 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자유로이 선사하시는 이 회년의 은총을 합당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3. 평신도와 회년

그렇다면 이 회년의 정신과 평신도는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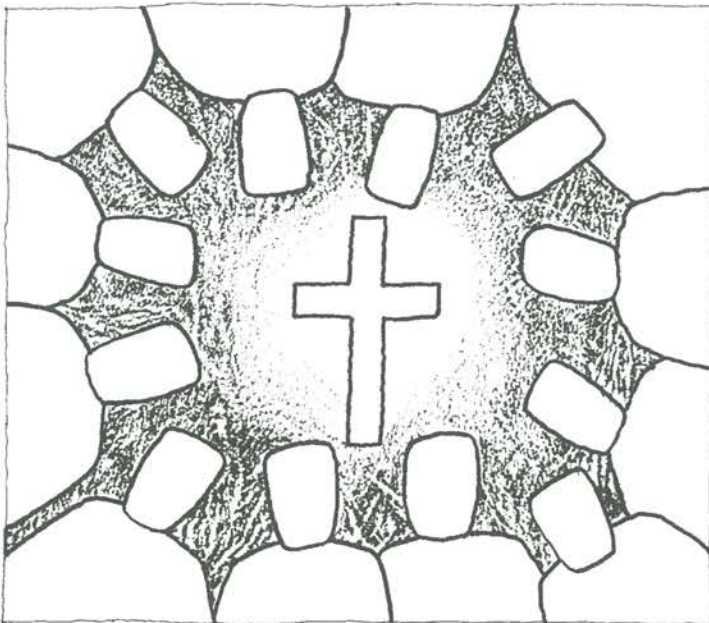
상관관계가 있는가. 회년의 정신이 원상회복에 있다면, 그 회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평신도들은 평신도의 원상(原狀) 곧 본래의 자리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실히 파악한 후,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 좀더 고찰하고자 한다.

3.1. 평신도의 원상(原狀)은

교회의 쇄신 또는 현대화를 기치로 내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규정했다. 하느님 백성인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도 그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고 그 직무가 서로 다르지만

한 하느님 백성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1고린 12.12: 교회헌장 7항 참조). 따라서 "평신도들은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한다"(평신도 그리스도인, 9항).

이렇게 같은 하느님 백성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평신도에게는 또한 평신도만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그것은 곧 "세속적 성격"(교회헌장 31항)이다. 세속은 그 무엇보다도 평신도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라는 것이다. 사실 평신도는 세속에 살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 평신도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하며 마치 누룩과도 같이 내부로부터 세계 성화에 이바지하며, 특히 믿음과 사랑과 사랑에 빛나는 실생활의 증거로써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같은 책, 31항) 사명을 지니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또한 실생활의 증거로써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평신도의 사명을 세 가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것이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의 삼중 사명이다.

평신도는 자신과 일상생활을 바치는 봉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 “평신도들이 그들의 모든 일, 기도, 사도직 활동, 결혼생활, 가정생활, 일상 노동, 심신의 휴식 등을 성령 안에서 행하며 더구나 생활의 번민을 인내로이 참아 받는다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뜻에 드는 영적 제물이 될 것”(평신도 그리스도인, 13항)이다.

나아가 “생활의 증거와 말씀의 힘으로 성부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사명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평신도들은 신앙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주저하지 않고 용기있게 죄악의 정체를 밝히고 죄악을 고발할 수 있는 역량과 책임을 받는다. … 평신도들은 또한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복음의 힘과 그 새로움을 빛내도록 부름받고 있다”(같은 책, 13항).

평신도는 또한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왕적 사명에 참여한다. 평신도들은 “무엇보다 자기 안에서 죄의 지배를 극복하려는 영적인 투쟁 안에서 자신의 왕직을 수행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쳐 정의와 사랑으로써 몸소 형제 자매들 안에, 특별히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자매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왕직이다”(같은 책, 13항).

이것이 평신도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요 평신도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사명이다. 따라서 평신도는 단지 사제들의 설교를 듣고 헌금 바구니에 봉헌을 하기 위해서 주일이면 성당에 모여드는 이들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서 성직자를 도와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며(교회법 제129조 참조)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현세의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비추어줌으로써 교회의 성장과 사회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한국사목지침서, 제5조) 존재인 것이다.

3.2. 원상회복의 전제

이상이 평신도의 원상, 곧 평신도의 본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교 신자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이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교회법 제204조)를 말한다. 우리 신앙에 대한 확신이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되었다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되었다는 이 확신은 단지 우리들 삶의 일부부이나 장식물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기반이요 바탕이 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서 신앙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전폭적으로 내어맡기는 전인적인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을 완전히 어머니 품에 맡기듯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나의 전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사랑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입에 발린 말이 되고 말 것이다.

둘째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반성과 회개이다. 왜냐하면 “회년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에 기초한 기쁨, 회개의 기쁨”(제삼천년기, 33항)이기 때문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리스도교의 제2천년기가 그 끝에 이르면서, 교회는 자기 자녀들의 죄과를 더욱 철저히 의식하여야 할 것”(제삼천년기, 33항)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 평신도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나 ‘반증거와 추문의 형태’를 보였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철저한 반성과 회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같은 책, 33항). 그러나 이러한 반성과 회개는 또한 구원의 확신을 전제로 한다. 즉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 단지 우리의 뜻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무상의 선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반성과 회개는 오히려 더 큰 기쁨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대희년과 평신도의 역할

2천년의 대희년을 단지 역사의 한 순간에 스쳐 지나가야 하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참으로 은총의 해이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년의 본 의미, 곧 ‘원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4.1.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로서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지닌 문제들 중 하나는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교회로서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산다는 점이다. 이른바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활과 절대로 무관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삶에 추가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교회생활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있다. 그러다보니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헌금과 교무금을 꼬박꼬박 바치고 교회의 신심단체들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다. 물론 평신도들도 각자의 고유한 위치에서 각자가 지닌 능력에 따라 교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평신도의 고유한 특성은 세속성에

있는 만큼, 평신도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세속 안에서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 세속 안에서 신앙을 산다는 것은 곧 평신도들 자신이 세속 안에서 교회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이나 셋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마태 18.19)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에서 우리 평신도 자신이 교회로서 살아야 한다. 그러할 때에 좁은 의미의 교회에서 벗어나 세상 안에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2. 더불어 사는 삶을 향하여

우리 자신이 세상 안에서 교회로서 살고 또 세상의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또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의 우리 교회, 우리 사회의 가장 이지러진 모습 중 하나는 더불어 살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남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나,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 이것은 비단 사회생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성당에서도, 가정에서도, 지역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소공동체 모임에서도 또 다른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신자들 사이에서도 개인적 집단적인 개인주의 또는 자기 중심주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분법적 사고를 청산하는 일이다. 평신도와 성직자, 우리 모임과 저쪽

모임, 우리 집과 다른 집을 지나치게 구분하여 상대방을 배타시하는 경향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한 현상으로서 마땅히 청산해야 할 악습이기도 하다.

구원은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다. 2천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특정한 몇몇 개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전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사명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너를 갈라놓는, 개인주의, 지역주의의 벽을 깨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4.3. 세속의 전문성에 복음의 정신을

현대사회의 특징들 중 하나는 전문화이다. 그리고 이 전문화는 갈수록 큰 위력을 불러 일으키며, 미래 사회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전문성에서 뒤떨어진 사람은 점점 치열해지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너나할것없이 전문성을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다.

전문성은 기술이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은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성을 키우는 데에 집착하다 보니, 전문성에 혼을 불어넣는 데는 소홀하다는 사실이다. 그 혼이란 다음아닌 '복음의 정신'이다. 복음의 정신은 세속의 전문성에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와 관련된다. 즉 세속의 전문성에 우리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복음적 가치를 드러내는 지 아닌지가 판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은 전문성이 뛰어나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성을 키우는 데에 집착하다 보니,
 전문성에 혼을 불어넣는 데는 소홀하다는 사실이다.
 그 혼이란 다름아닌 ‘복음의 정신’이다.

우리 평신도들 사이에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 학자나 교육자는 학자나 교육자로서, 전문 기술인은 기술인으로서 그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문성에 복음의 가치, 즉 혼을 불어넣는 일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미흡하다.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교육이, 우리의 기업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만 있을 뿐 전문성에 마땅히 불어넣어야 할 복음적 가치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적 직업 윤리가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제대로 서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직업, 노동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31) 하신 창조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된 새로운 질서를 가꾸고 보전하는 데 있다. 나아가 직업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사목현장 57항 참조). 이것이 바로 세속의 전문성에 혼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또 2천년 대회년을 앞두고 우리가 원상을 회복해야 할 중요한 자리 중 하나다.

4.4. 의무의 실천뿐 아니라 권리의 행사를 노동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은 우리가 한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최소한의 의무 규정들이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동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의무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우리가 진정 책임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무만 실천할 것이 아니라 권리도 행사해야 한다. 우리의 사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권리의 행사에 소홀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뽑을 권리,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할 학교나 교육 당국에 요구할 권리, 시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 요구할 권리, 이런 권리들에 의외로 무관심한 것이 우리의 일반 의식이다.

이것이 비단 사회생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교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무금을 내고,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1년에 한두 번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는 최소한의 의무 외에도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목

자들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우리는 평신도로서 신앙 교육을 받을 권리, 좋은 강론을 들을 권리, 성사생활에 참여할 권리, 그 밖에 필요한 영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교회 안에서 능동적인 주체로서 교회의 운영과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할 의무와 권리도 있다. 그렇지만 의무의 이행만 요구당하고 있을 뿐, 권리를 적극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평신도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겠지만 또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평신도들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 역시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5. 결 론

지금까지 2천년 대회년과 평신도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관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전개해 보았다. 분명한 것은 2천년 대회년이 2천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단지 다시 한번 기념하는 통과 의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대회년을 통과 의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주는 은총의 해로, 자유와 해방의 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년의 참다운 의미를 우리 자신이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실생활과 구체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어야 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가 회년을 참으로 뜻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회년의 정신을 올바르게 배우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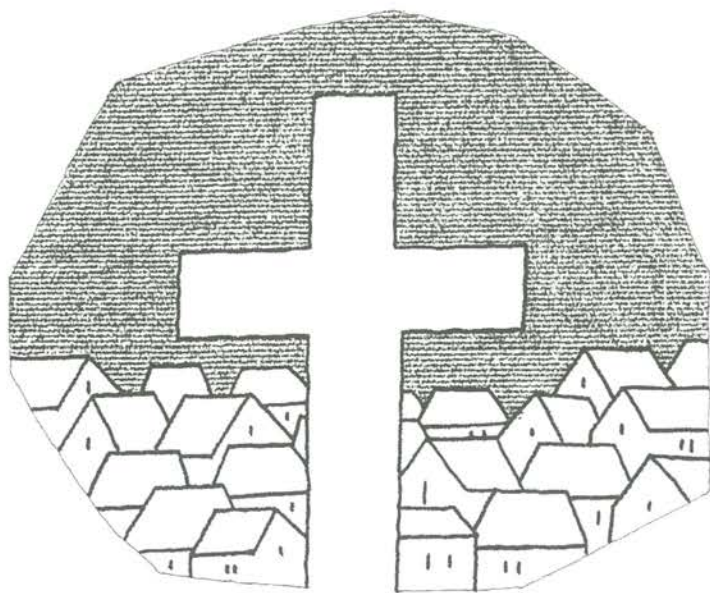
해하기 위한 공부이다. 한국의 평신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교회나 교회의 가르침, 교리 지식 등에 대한 지적 빈곤이다. 물론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올바른 삶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올바른 삶,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로, 참회 예절이다. 개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 소공동체에서, 나아가 본당 공동체나 교구 공동체에서도 지나온 삶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이것은 2천년 대회년을 뜻있게 맞이 위한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셋째로, 구체적인 실천 운동이다.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지난 평신도주일을 기해 '제자리 찾기 운동'을 대회년 맞이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 제자리 찾기를 개인이나 공동체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노력들을 통해 우리가 2천년을 뜻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된다면, 2천년 대회년은 우리 평신도들과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도 참으로 은총의 해로, 복된 해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글은 지난 12월 6일 열린 '제2회 삼토신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제 제 자리를 찾아 나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인 오늘 우리는 평신도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평신도주일은 평신도주일이 제정된 후 서른번째로 맞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68년 한국 주교회의는 가을 정기총회에서 해마다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의 날'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신도주일은 2년 후인 1970년부터 연중 마지막 주일(그리스도왕 대축일) 바로 전 주일로 옮겨 지내게 되었습니다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평신도들은 해마다 평신도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왔습니다. 오늘 서른번째의 평신도주일을 맞아 우리는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는 공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리를 굳게 딛고 일어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2천년 대회년을 불과 2년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보편 교회는 대회년을 직접 준비하는 첫번째 해인 올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목상하는 성자의 해로 지내고 있으며, 곧 다가올 98년을 특별히 성령의 활동을 깊이 체험하는 해로 지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를 마무리짓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히브 13.8)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가운데 2천년 대회년의 준비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회년을 참으로 뜻있게 맞이하고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회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무엇이 요청되는지를 먼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회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곧 '원상회복'(原狀回復)입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31) 하신 그 자리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때 우리는 회년이 가져다주는 참다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루가 4.18-19 참조).

하느님 백성의 지체로서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평신도들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회개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회년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에 기초한 기쁨, 회개의 기쁨입니다"(제삼천년기, 32항).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회는 자기 자녀들의 죄과를 더욱 철저하게 의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신앙의 가치에 영감을 받은 삶을 세상에 증언하기는커녕, 참으로 반증거와 추문의 형태를 보이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 빠져들어 그리스도와 그분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역사의 모든 시대를 그 자녀들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제삼천년기, 33항)는 것입니다.

따라서 3백50만 우리 평신도들은 회년이 가져다주는 참다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걸어왔던 지난 삶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본연의 자리를 새롭게 확인하고 잃었던 그 자리를 되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회년의 기쁨은 성령의 선물로서,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미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평신도들은 교회 생활의 일선에 서 있다. ...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더욱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한다."(평신도 그리스도인, 9항)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지체로서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평신도들의 자리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평신도만이 지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이 고유한 특징을 "세속적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속은 그 무엇보다도 평신도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

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평신도들은 세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하며 마치 누룩과도 같이 내부로부터 세계 성화에 이바지하며 특히 믿음과 사랑과 사랑에 빛나는 실생활의 증거로써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교회헌장 31항)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 본연의 자리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습니까? ‘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의 현주소는 우리가 본연의 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본당들이 사귄과 나눔과 섬김의 복음적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또한 교회 자체인 우리 자신들의 삶이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오늘의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윤리와 도덕관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된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제1의 신조처럼 우리 사회 전체에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공동체 정신은 아랑곳없이 권력욕과 명예욕과 물질욕이 최상의 가치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나머지 참으로 사람다운 삶, 인간미 넘치는 사회는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사회는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고 급기야는 거꾸로 뒤바꾸고 있는, 참으로 ‘혼돈의 세계’로 전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세속을 하느님의 뜻대로 비추고 관리함으로써 성화시켜 나가야 할 우리 평신도들이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이미 지난 9월 6일 ‘더불어 사는 정치를 위한 우리의 호소’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날의 낡은 정치행태에 벗어나 정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되어 온 상황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더욱 가중시킬 정도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치인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정치인들이 아직도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쇠신하여 제자리를 찾게 된다면, 그릇된 가치 질서를 바로잡고 병든 사회를 새롭게,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3백50만 평신도를 비롯한 국민 각자가 제자리에 굳게 서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실망할 때는 아닙니다.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쇠신하여 제자리를 찾게 된다면, 그릇된 가치 질서를 바로잡고 병든 사회를 새롭게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시대의 낡은 정치행태도 바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서른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평신도주일을 계기로 회년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회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천년의 대회년을 참으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제자리 찾기 운동'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잃었던 우리 본연의 자리를 다시 찾아 그 자리에 충실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으셨다' 하신 그 본연의 상태를 되찾으려는 실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나아가 회년의 기쁨을 구체화하는 사랑과 나눔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 전체에 가득 차 흘러 넘치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평협은 3백50만 평신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나누고 뜻을 합쳐나갈 것입니다. 평협은 이 운동을 우선 회개의 정신으로 겸허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 잃어버렸던 그 본래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우리 자신을 비롯해 우리가 처한 이 사회가 제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본연의 자리에서 굳게 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평협은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리 찾기 운동이 한낱 구호로 그치지 않고 참으로 우리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 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3백50만 평신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뼈저린 각성과 쇠신 의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을 참다운 기쁨으로 간직하고 있다면, 이 제자리 찾기 운동은 우리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가슴 벅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자리 찾기'가 한낱 구호로 그치지 않고 참으로 우리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 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3백50만 평신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천년 대회년의 직접 준비 단계의 첫번째 해인 '성자의 해'를 마감하면서 두번째 해인 '성령의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1998년은 이땅의 평신도 사도직을 촉진하고 모든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발족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대회년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제자리 찾기 운동이 3백50만 평신도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밑바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지난 1968년 평신도주일을 제정하면서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주일로 지내기로 한 것은 한국 천주교회 창설 주역의 한 사람인 이승훈 베드로가 1783년 동지사(冬至使) 일행을 따라 북경으로 들어가던 때와 맞먹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순수한 일념으로 이국 땅을 찾아 들어가 마침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선조들의 뜨거운 신앙은 우리에게 큰 자극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피흘려 하느님을 증거한 순교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거듭나고 우리 자신을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내어맡긴다면 만사를 당신 섭리로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7년 11월 16일 평신도주일에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순교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거듭나고 우리 자신을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내어맡긴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신부터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3월 6일 '대회년을 바라보며'라는 공동 사목교서를 발표했다. 2천년의 대회년을 3년 앞두고 대회년을 직접 준비하는 첫해에 발표된 이 사목교서는 한국 교회의 대회년 준비를 위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교단은 이 사목교서에서 우선 그리스도교 2천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섭리를 묵상하도록 신앙인들을 초대하고 있다. 이어 지난 한 세대 동안 경제 제일주의에 매달려 '참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면서 환경 오염과 훼손으로 드러나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부정과 부패, 탐욕과 이기주의로 인한 인간 정신의 사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직시한다. 그리고 병든 사회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눈을 들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목교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 역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당사자들임을 천명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한 주교단은 이를 위해서는 2천년 전 세례자 요한이 촉구했고 예수 그리스도 친히 가르치신 '회개'가 요청된다고 강조한다.

바로 여기에서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능동적 주체로서 하느님 백성의 절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2천년 대희년을 앞두고 해야 할 첫번째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목교서는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당연히 나서고 개입해야 할 불의를 보면서도 온갖 이유를 내세워 이를 묵인한 적은 없었는가?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 평화를 내세워… 주님의 말씀에 외면하려 들지는 않았는가? 악을 조성하고 유지시키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 어떤 종류의 사회악을 피하거나 근절시키며 적어도 줄여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앉은 이들의 나태·비겁·침묵에 의한 방조·비밀 공모·무관심 등으로 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때 세상을 개선하는 일은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나서 그걸 구실로 자기의 작은 세계에 안주하는 사람… 그럴 듯한 이유들을 늘어놓으면서 의당한 노력이나 희생을 거부하는 인간들도 모두 개인적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회악을 고발하면서 체제와 구조에 나타난 악의 시선을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살피는 데 소홀함은 없었던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정작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일은 없었던가?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비판하는 일이 하나의 습성으로 굳어져서… 독선적 인격으로 고착되지는 않았는가? 정의를 내세워 사랑을 잃지는 않았는가?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면서 자신은 특권적 대우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이 모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3백50만 평신도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할 내용들이다. 주교단은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시류에 영합하고 물질주의의 흐름에 밀려 진리로부터 벗어난 길을 걸어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평신도들도 같은 고백을 해야 한다. 시류에 영합하고 세파에 휩쓸려 본의든 타의든 진리로부터 벗어난 길을 걸어왔음을 하느님과 형제들 앞에 겸허하게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시류의 흐름이 아닌 시간과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맡겨드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광야의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변화된 삶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히브 13.8)라는 신앙고백이 될 것이다.

〈「평협의 소리」 제9호(1987.3.23)에서〉

우리 평신도들도 주교단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한다. 본의든 타의든 진리로부터 벗어난 길을 걸어왔음을 하느님과 형제들 앞에 겸허하게 고백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정치를 위한 우리의 호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기(千年紀)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는 우리에게 각자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고, 정당한 방법과 새로운 열정으로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올 연말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천년대의 지평을 열어가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적 행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아랑곳없이 민주질서를 통한 과정보다 무시한 채 오직 집권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것이 청치권의 실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상대편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고, 헐뜯기 성명과 논평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쟁'은 있어도 '정치'가 없는 오늘의 세태입니다. 정치는 무엇보다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8월 세계정치학회 서울대회에서도 지적했듯이 '더불어 사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 행태를 볼 때 우리에게 더불어 사는 정치가 있는 것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더불어 사는 정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촉구합니다.

지난날의 낡은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리당략만을 좇을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 돈으로 표를 사려는 행위도 사라져야 합니다. 국회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관련 개입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바뀐다’는 평범한 진리를 거울삼아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 올바른 정치문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겠습니다.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촉구합니다.

신문·방송을 포함한 모든 언론과 언론인들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보도로써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민족의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행사입니다. 혈연이나 지연, 학연, 또는 눈앞의 이익에 이끌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또한 우리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명선거의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천주교 신자인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호소합니다.

가을날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봄에 씨뿌리고 여름날 땀흘려야 하는 것과 같이 의로운 정치, 더불어 사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으로나 단체로나 상식 밖의 말과 행위로써 공동체의 일치를 깨뜨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이 시대와 겨레의 미래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헤아려보고, 그 뜻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바뀐다’는 평범한 진리를 거울삼아 우리 각자가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 올바른 정치문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겠습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의 소리」 제11호(1997. 11. 16)에서〉

작은 그리스도를 찾아

- 가톨릭 대상 시상 -

- 사랑 부문: 요셉의원(원장: 선우경식 요셉)
- 문화 부문: 김영걸 안드레아
- 특별 상: 전 전주고등학교 1학년생
(故)정인성, 신준섭, 장만기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제14회(1997년) 가톨릭 대상 수상자로 사랑 부문 1개 단체와 문화 부문 1명, 특별상 1팀(3명)을 선정, 지난 11월 8일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시상하였다.

가톨릭 대상은 이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남다른 사랑의 실천과 봉사와 희생에 앞장서며 정의구현과 문화의 창달에 현저히 기여한 숨은 공로자, 곧 작은 그리스도를 찾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982년에 제정, 해마다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사랑 부문 대상에 요셉의원, 문화 부문 대상에 김영걸 씨를 각각 선정, 시상했으며, 정의 부문 대상은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살신성인 정신의 고귀한 귀감을 보여준 전 전주고등학교 학생들인 고(故) 정인성, 신준섭, 장만기 군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3백만 원의 상금이, 특별상에는 상패와 2백만 원의 상금이 각각 전달되었다.

이번 가톨릭 대상은 이관진 회장(한국 평협 상임고문, 전 한국 평협 회장)을 심사위원장으로 류덕희 회장(한국 평협 회장) 외 전임·현임 한국 평협 고문 및 회장단과 관계 임원으로



수상자들이 주교회의 평신도위원회 위원장 김육군 주교, 한국평협 류덕희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다.

■ 요셉의원

요셉의원(원장:선우경식 박사)은 서울 경기 지방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은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요셉의원은 서울 신림동시장 안 낡은 건물 2층에 개원한 이래 불우이웃에게 무료진료를 10년이 넘게 해오고 있는 병원이기도 하면서 또한 가난한 이의 허기를 채워주는 급식소이기도 하다.

이곳의 원장을 맡고 있는 선우경식 박사를 비롯, 의사 5~6명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위해 지난 1987년 문을 열었으며, 지금은 의사, 간호사, 관리인을 합하여 70~80명의 무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여러 성당의 레지오 단원들과 신심단체 등에서 4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청소, 빨래, 급식을 돕는다.

이런 일이 점점 알려지자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찾아와서 점심시간 무렵이면 급식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요셉의원은 10년이 넘게 무료진료를 해오고 있는 병원이면서 또한 가난한 이의 허기를 채워주는 급식소이기도 하다.

신림동 재개발구역에 있던 요셉의원은 지난 9월 여러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영등포 롯데백화점 뒤편으로 옮겨 김수환 추기경의 주례로 축복 미사를 봉헌했다. 이때 초청장을 발송치 않았는데도 약 500명의 하객이 운집, 성황을 이룬 사실은 요셉의원의 숭고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이 주위에 얼마나 큰 귀감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원장 선우경식 박사의 겸손한 사양으로 이 상을 요셉의원에 수여함으로써 수많은 봉사자들의 고마움에 공을 돌리는 것은, 오염된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 메아리칠 것이다.

■ 김영걸 안드레아

김영걸 씨는 영화감독으로서 자신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봉헌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생활까지를 희생하면서도 영화와 비디오를 통해서 움직이는 교회의 역사자료를 기록하고 수집·정리하는 한편, 이러한 매체를 활용해서 '새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다.

1971년 제작 연출한 극영화 「목소리」를 비롯, 「사회 속의 종교」, 「절두산」 등의 문화영화를 연출하고 또 다른 교회관련 영화를 제작 연출하면서, 가톨릭에 관한 영상자료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교회사적으로 필요한 영상자료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결심한 뒤부터는 각종 교회행사들의 기록사진이나 성지의 소개, 불우시설들의 사랑 넘치는 기록들을 만들고 있다.

이 외에도 그가 만든 성영화(聖映畵)는 「밀씨」, 「성유」 등 150편 이상이다. 김영걸 씨는

또한 교회 활동도 열정적으로 해왔다. 1969년 가톨릭 예술인협회를 조직하여 영화담당 이사를 시작으로, 1976~1986년에는 영화진흥공사 신자모임을 이끌었다. 또한 1970~1986년에는 가톨릭 마스크 위원회 위원으로, 1969~1995년에는 서울 및 전국 평협의 홍보위원으로 활동했다. 자신의 본당인 금호동성당에서는 사목위원과 주일학교 교장, 사목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83년부터는 성찬 봉사자로 봉사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수집, 제작한 각종 교회사적 영상 자료들은 그의 작은 집 방마다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교회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도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김영걸 씨는 영화감독으로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재능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봉헌하고 있다.

■ 고(故) 정인성, 신준섭, 장만기

이 학생들은 전주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1997년 7월 21일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전북 부안 변산해수욕장에서 후배 10명을 익사 직전 구출하고 자신들은 힘이 빠져 익사하는 살신성인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후배 아우들이 바닷물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익사 직전에 있는 것을 보고 오로지 동생들을 살려내야겠다는 순수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청소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세 학생은 비록 희생되었더라도 그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기엔 높이 기려, 혼탁한 세상에서 갈피를 못 잡는 청소년들의 길잡이로 삼고자 이들에게 가톨릭 대상 특별상을 수여하게 되었다.

2000년대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하여 후학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것, 그리고 전라북도 사회복지관에 이들의 동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계획에도 큰 박수를 보내면서, 이들을 키워주신 세 학생의 부모님께 위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세 학생은 비록 희생되었더라도 그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기엔 높이 기려, 혼탁한 세상에서 갈피를 못 잡는 청소년들의 길잡이로 삼고자 한다.

〈평협의 소리〉 제11호(1997. 11. 16)에서



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다짐

2000년 대희년을 앞둔 '성령의 해' 를 맞이하며
 평신도의 '제자리 찾기' 에 나선 우리는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본분을 찾음은 물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다짐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나라 경제가 극심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음은
 워정자와 기업인, 근로자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 모두의 잘못된 삶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제자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분수에 맞는 검소한 생활만이
 그 동안 이룩해 온 우리 나라 경제를 되살리는 지름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350만 신자들이 앞장서서 실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 실천 사항
- 1. 우리는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고 과소비를 억제한다.
 - 1. 물자를 아껴 쓰고 저축에 힘쓴다.
 - 1. 외제물품을 쓰지 않고 우리 기업 우리가 키워나간다.
 - 1. 해외 관광여행을 자제하며 적은 액수라도 외화를 저축한다.
 - 1. 우리 농산물, 우리가 먹는다.
 - 1. 자가용 운행을 절제하고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 1.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데 앞장선다.



1997년 11월 23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각 교구 평협 회장 명단

교 구	이 름	세례명	☎
서울대교구	류덕희	모세	(02)421-9398
춘천교구	이기천	요한	(0361) 53-2532
대전교구	이병철	마리오	(042) 862-0808
인천교구	남기충	루가	(032) 464-7713
수원교구	박인환	베드로	(0342) 41-6769
원주교구	이계열	아우구스티노	(0371) 42-6500
대구대교구	최옥식	바오로	(053) 766-0774
부산교구	안병희	모세	(051) 242-3668
청주교구	양천진	에드워드	(0431) 66-1303
마산교구	김서곤	베네딕도	(0551) 46-9456
안동교구	오영창	토마스	(0581) 53-2637
광주대교구	김영진	토마스	(062) 363-4968
전주교구	문치상	비오	(0652) 246-2244
제주교구	김경환	베네딕도	(064)58-3779
군중교구	유재열	이나시오	(0335) 33-1722

전국평업 임원 명단

직 책	성 명	전 화 번 호	
회 장	류 덕 회 (모 세)	H) 421-9398	O) 576-6001
감 사	남 기 충(루가)	H) 032-464-7713	O) 032-469-8010
감 사	김 경 환(분도)	H) 064-58-3779	O) 780-8235
부 회 장	김 영 진(토마스)	H) 062-363-4968	O) 0636-450-2171
부 회 장	최 옥 식(바오로)	H) 053-766-0774	O) 053-810-2335
부 회 장	유 양 수(요 셉)	H) 0344-906-0573	O) 557-9192
부 회 장	강 형 일(루도비꼬)	H) 542-9962	O) 275-8225
부 회 장	박 애 주(글 라 라)	H) 567-3234	O) 778-7543
사무총장	박 찬 도(이 보)	H) 868-5677	O) 521-3147
기획분과위원장	이 흥 균(요 셉)	H) 470-3290	O) 307-8171
교육분과 위원장	조 천 제(베 다)	H) 357-1094	O) 364-7272
국제협력분과 위원장	김 영 복(마 르 꼬)	H) 387-0724	O) 460-7624
홍보분과 위원장	이 충 우(안드레아)	H) 359-6690	O) 2702-501
문화분과 위원장	최 흥 준(파비아노)	H) 652-5732	O) 3450-2214
청소년분과위원장	서 만 규(베드로)	H) 537-3770	O) 557-4343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양 정 조(프란치스코)	H) 843-4543	O) 777-1598
정의평화분과 위원장	김 진 열(프란치스코)	H) 566-7983	O) 703-2373
도농협력분과 위원장	류 정 목(사도요한)	H) 364-5862	O) 3444-8260
사무국장	강 주 회(요한)	H) 878-3176	O) 777-2013

대회년 준비를 위한
“성령의 해” 기도

교회의 힘과 얼이신 친교의 성령님,
풍요한 은사와 직무들이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에 이바지하게 하시고,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이 화합하여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하소서.
기쁨과 평화의 무궁한 원천이신 위로의 성령님,
저희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병자들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며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오소서, 사랑과 평화의 성령님!
전능하신 성부와 독생 성자와 함께
사랑이신 성령께서는
영원한 찬미와 영예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